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55호 【루계 제26229호】 주체107(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식의 해안도시로 훌륭히 꾸릴데 대한 당의 구상을 받들고 수도건설위원회 산하단위 국장 림일봉은 공사에 필요한 많은 자재와 물자를 지원하여 건설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였다.

부흥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부원 박은경은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후방물자들을 가지고 총공세의 기상이 나래치는 전투장을 찾아가 경제선동을 벌리고 돌격대원들의 생활에도 뜨거운 혈육의 정을 기울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삶의 미래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기고 평양산원 의사 김철남은 명사십리전역에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건설자들에게 많은 물자들을 지원하였다.

중구주택건설사업소 로동자 조경희는 어려차례에 걸쳐 들끓는 공사장에 달려가 전투원들의 일손을 돕고 건설자재도 마련해주어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동해의 명승지에 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데 적은 힘이나마 바쳐갈 열의밑에 조선혁명박물관 산하단위 로동자 최시내도 물심량면의 지원으로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평양시학원물자공급소 로동자 김경심은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고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애국의 한마음을 바쳐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적극 헌신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반영기를 열어나가자》를 로작발표 5돐에 즈음하여 브라질선군정치연구센터가 8일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하였다.

홈페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을 보시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의 전문을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가 8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의 회고모임 중국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의 회고모임이 13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주보중의 딸 주위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오늘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위대한 김정일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고있다. 지금도 어린 나이에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 김정숙어머님을 모시고 부모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보로 소중히 간직하고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혁명적우정은 더욱 두터워지고있다.

리재덕의 아들 우명은 김정일장군께서는 생전에 김일성주석과 함께 싸운 전우들과 그 후대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장울화의 딸 장금록은 존경하는 김정은위원장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신다,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그이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강조하였다.

상월선생의 아들 상소위는 존경하는 김정은위원장의 비상한 정치적안목과 탁월한 외교지략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며 전통적인 중조친선이 더욱 강화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편 14일 중국 심양에서도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의 회고모임이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중요대상설비와 부분품생산과제 넘쳐 수행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높이 대상설비와 부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라남의 로동계급은 정초부터 과감한 돌격전을 벌려 뜻깊은 올해에 새형의 능률적인 300hp권양기를 비롯하여 수십종에 백수십대의 대상설비와 많은 부분품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서 라남의 로동계급이 맡고있는 임무는 크다.

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증산돌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대상설비와 부분품생산에서 위훈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는 경제선동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라남의 명화를 높이 추켜들었던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교양사업을 심화시키였다.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은 직장들과 중요기대들을 맡고 나가 로동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었다.

일군들은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대상설비와 부분품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업무부문에서는 로동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자재보장을 따라세워 대상설비와 부분품생산을 떠밀어주었다.

앞선 단위의 경험을 따라배우기 위한 경쟁열풍이 일어번지는 속에 자랑할만 한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새형의 능률적인 300hp권양기생산을 위한 부분별설비제작과 조립, 시운전을 립체적으로 동시에 밀고나갔다.

설계집단은 기발한 착상과 합리적인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였다.

기술집단은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두되전, 실력전을 벌려 PLC화에 필요한 조종프로그람들을 개발하였으며 배전함과 조종계통을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였다.

주강직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집단과 힘을 합쳐 선진적인 용해방법을 받아들여 주강품의 질을 높이였다.

제관직장에서는 자체로 많은 량의 철판을 회수리용하여 몇달은 걸려야 하는 부분품제작을 20여일동안에 해제끼였다.

권양기직장, 채탄기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에서는 옥중한 설비들의 제작기일을 앞당기였으며 수천개에 달하는 부속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그 기세로 권양기의 부분별조립을 짧은 기간에 해제끼고 시운전을 보장하였다.

유압직장에서는 채탄기직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유압기구들과 장치들을 제작하였다.

김혁제철련합기업소에 보낼 대상설비생산과 강철구조물제작전투에서 자력갱생정신이 나래쳤다.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라남의 로동계급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투쟁을 벌려 대상설비생산과제를 짧은 기간에 앞당겨 수행하였다.

특히 용접공들과 제관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맡겨진 강철구조물제작과제를 매일 2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경성도자기공장에 보낼 대상설비생산을 맡은 직장들에서는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여러대의 불분쇄기생산전투를 제기일내에 결속하였다.

채탄기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풀어나가면서 삼지연군무리기전투장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보낼 대상설비생산을 앞당겨 해제끼였다.

집단적경쟁열풍속에 석탄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보낼 탄광기계설비들과 부분품생산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련관단위 공장, 기업소들에서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필요한 강재와 협동품을 생산보장하였다.

련합기업소인의 가족들이 증산투쟁에 떨쳐나선 로동자, 기술자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련합기업소에서는 수십종에 백수십대에 달하는 대상설비와 수천개의 부분품을 제기일내에 생산하고 년간 대상설비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증산돌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라남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대상설비와 부분품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정치사업을 침입식, 집초식으로

◇최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대 동해지구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겨울철집중어로전투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인민군대의 수산사업소들에서는 겨울철집중어로전투에 진입하여 짧은 기간에 수만t의 물고기를 잡았다. 이들이 높이 올린 만선의 배고동소리는 당에 대한 충정,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의 분출이며 조전타발, 자재타발을 하면서 동면하고 소극성에 사로잡힌 책상주의자들, 패배주의자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진격나팔소리이다.

인민군대와 사회의 물고기잡이실적의 차이는 다름아닌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의 차이이며 이것은 정치사업방법의 실효성에 중요하게 기인된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집초식으로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사업에서는 또한 사람들의 준비정도와 특성, 사상동향에 기초하여 사상전의 과녁을 바로 정하고 적중한 수단과 방법을 적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사업을 침입식, 집초식으로 한다는것은 박달나무를 쐐기를 박아 짜개듯이, 펜즈로 해빛을 한점에 모아 불을 일으키듯이 요진통에 사상전의 명중포화, 집중포화, 련속포화를 들이대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인민의 비상한 애국충정,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최대로 폭발시켜나간다는데 침입식, 집초식정치사업방법의 위력이 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오늘의 시대는 사상사업방법에서도 혁신을 요구한다. 평양시와 강원도에서 새로운 시대정신, 시대속도를 창조할수 있은것은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물고 그 관철을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실효성있게 공세적으로 벌린데 있다. 침입식, 집초식정치사업, 여기에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새로운 영웅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갈수 있게 하는 기본열쇠가 있다.

◇정치사업은 목마른 사람에게 어디 가면 물을 마실수 있다고 알려주는것처럼 사람들이 알고싶어하는것, 듣고싶어하는것을 당정책에 립각하여 귀에 쏙쏙 들어가게 진행하여야 한다.

남력청년탄광의 민히선동무는 우리 당의 참된 선동원이다. 언고개를 넘긴 그를 아직도 탄부들이 단발머리처녀시절의 《민금단》으로, 탄광에 없어서는 안될 《우리 선동원》으로 정을 담아 부르고있는것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쥐고 선동활동을 능동적으로, 참신하게 벌리기때문이다. 그의 선전선동은 매번 새롭고 생산자대중의 심금을 울리고있으며 그것은 그대로 석탄증산에로 이어지고있다.

우리 일군들이 벌리는 하나하나의 정치사업이 사람들의 피를 끓이는 산 사업으로 될 때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는 놀라운 기적과 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될것이다.

증산돌격운동의 선구자들이 늘어난다 각지 방직공장에서 2년분, 3년분, 4년분계획완수자 배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혁명정신이며 투쟁기풍입니다.》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려는 우리 인민의 앙양된 열의와 드높은 혁명적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혁신의 소식이 전해졌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방직공업부문에서 올해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린 결과 수십명의 다년분 인민경제계획완수자가 배출되였다.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새해벽두부터 힘찬 돌격전을 벌려 년간계획완수자대렬에 제일먼저 들어섰던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방적종합직장 준비직장 조방공 김주경동무와 전망종합직장 4직포직장 직포공 한명희동무를 비롯하여 5명의 방직공들이 12월 중순까지 4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다.

매일 계획을 3배이상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걸고 정량보다 많은 기대를 맡아 이악하게 노력하여온 나날에 4년분 인민경제계획완수자가 된 화학섬유방직종합직장 권사직장 연사공 리은정, 전방종합직장 4직포직장 직포공 신은별, 방적종합직장 청년정방직장 옥양공 리정희동무들의 뒤를 이어 수십명의 녀성방직공들이 3년분, 2년분계획을 련이어 완수하였다.

하여 공장에서는 40여명의 방직공이 다년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대렬에 들어섰다.

사리원방직공장에서도 5직포직장 직포공 김영심, 2직포직장 직포공 조옥희동무를 비롯한 20명의 방직공들이 3년분,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로력적성과를 이룩하였다.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어머니조국의 전진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칠 일념안고 온 한해를 위훈으로 수놓아온 함흥모방직공장 방직공들속에서도 7명의 3년분계획완수자가 배출되였다.

30여년세월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지켜 헌신하는 나날에 공훈방직공이 된 직포준비직장 연사공 채옥선동무와 오래동안 공장에서 일해오고있는 연사공 김은해, 류정숙, 권사공 주봉숙동무, 전절방직직장 권사공 주영미, 직포준비직장 합사공 박송희, 1직포직장 직포공 주정화동무를 비롯한 처녀방직공들은 증산돌격운동의 맨 앞장에서 내달려 또다시 다년분 인민경제계획완수자의 영예를 떨치였다.

그들의 일본새를 본받아 25명의 방직공들이 2년분계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훈이 새로운 위훈을 낳고 기적이 더 큰 기적을 안아오는 만리마시대의 거세찬 열풍속에 9월방직공장에서도 여러명의 다년분 인민경제계획완수자가 배출되였다.

1직포직장 직포공 림충심, 방적종합직장 3정방직장 정방공 김정애, 3준비직장 권조공 리정심동무를 비롯한 10여명의 로동자들이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남먼저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의주방직공장에서도 다년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대렬이 늘어났다.

지금도 전국의 방직공업부문 녀성근로자들은 전세대 로동계급의 투쟁전통을 이어 우리 당이 태워준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잡고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각지 방직공업부문 《준마처녀》들이 거둔 빛나는 로력적성과는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하고있다.

본사기자 오은별

새형의 라선형물고리식압축기 제작도입 득장탄광기계공장에서

득장탄광기계공장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갱굴진작업에서 보다 큰 실리를 얻을수 있는 새형의 4.5㎥라선형물고리식압축기를 만들어 실천에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계제작기술의 최신성과에 토대하여 새형의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설계제작하고 계렬생산공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지난해에 10㎥라선형물고리식압축기를 만들어본 경험에 토대하여 지난 10월부터 새형의 라선형물고리식압축기를 제작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기술자들은 10㎥압축기의 부족점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갱굴진작업에서 보다 실리적인 4.5㎥라선형물고리식압축기를 제작할 목표를 세웠다. 련이어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면서 간단한 함구전을 벌려 새형의 압축기 부분품들에 대한 설계를 하나하나 완성시켜나갔다.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주도세밀한 조직사업으로 새형의 압축기 제작전투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가공작업반과 제관작업반의 로동자들은 보링반과 선반 등 각종 설비를 만가동시키며 새형의 압축기제작에 필요한 부분품을 원만히 가공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평안남도당위원회와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도 전투현장에 자주 나가 설비와 자재보장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대중의 투쟁기세를 고조시키였다.

설비제작과정에 실패도 거듭되였다. 그러나 이들은 주저앉지 않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부분품들의 가공정밀도를 비롯한 기술적지표들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결과 짧은 기간에 4.5㎥라선형물고리식압축기를 훌륭히 제작하였다.

이 압축기를 2.8직동청년탄광에 도입해본 결과 여러 측면에서 우월성이 확증되였다.

새형의 압축기를 도입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실리는 크다.

우선 설비의 크기가 10㎥라선형물고리식압축기에 비해 훨씬 작고 전력소비가 근 3분의 1로 줄어든것이다.

막장에 접근시키기 유리한것으로 하여 공기배관을 거의 쓰지 않으며 공기리용률도 더 높은 우점을 가지고있다.

또한 구조가 간단하여 제작원가가 적고 어디서나 손쉽게 만들수 있어 대단히 경제적이다.

공장에서 새형의 압축기를 훌륭히 제작도입한것은 막장의 기계화비중을 끌어올리고 탄광에 필요한 다양한 압축기를 생산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것으로 된다.

지금 이들은 성과에 토대하여 새형의 압축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준

—룡악산비누공장에서— 리명철 찍음

인민들의 호평받는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제4차 전국농업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평양도착

【평양 12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제4차 전국농업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2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덕동지와 내각부총리겸 농업상 고인호동지, 관계일군들이 평양역에서 회의에 참가할 모범적인 농장원들과 농촌초급일군들, 농업과학자, 기술자들을 맞이하였다.

이번 회의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다수확열풍을 일으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 제시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최후승리는 신념의 강자들의 것이다

격동적인 사변들로 천만의 가슴에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따라 천만산악도 용감무쌍히 넘을 기상이 차넘치게 한 환희의 해, 영원히 잊을수 없는 승리의 해가 저물어간다.

세계정치무대에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주체조선의 권위와 위력, 강용한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희상의 경지에서 떨치며 인류의 복풍같은 경탄을 불러일으킨 희한한 승리의 해,

조선을 떨게 하고 세계를 떨게 하는 미증유의 사변들을 련속 터치여 성스러운 주체혁명의 길에 세계사적인 승리의 해로 길이 빛날 참으로 격동적인 해,

특출한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위대한 혁명가이시며 탁월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고 무궁강대한 우리 조국의 래일이 있으며 정의와 광심을 원하는 인류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진리를 우리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애혹과 흠모의 열기로 우리 더욱 깊이 절감한 력사에 특기할 승리의 해가 아니던가.

* *

승전고 높이 울리는 혁명에는 반드시 위대한 승리의 원천이 있다.

주체조선의 진정한 강대성을 알고 존엄높은 우리 민족의 전도양양한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학처보아야 할 밑뿌리가 있다.

무진막강한 주체조선의 힘은 천만대적이 떼지어 달려들면 일격에 때려눕힐수 있는 무적의 국방력만이 아니며 후손만대로 물려갈 억대의 자원도 아니다.

주체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자면 신념이 강해야 합니다.

이런 억척불변의 의지를 만장약하시고 누구도 상상할수 없고 누구도 해낼수 없는 전례없는 승리의 장홍을 련속 부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세계의 각광을 받는 주체조선의 위력은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정신력의 최고대표자이시며 천하제일의 배짱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비상한 신념의 힘이다.

오늘의 세계를 진동하는 위대한 **김정은**정치는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신념의 정치이다.

우리가 이룩하는 모든 승리도 위대한 정치가의 특출한 신념에서부터 시작되고 만민을 격동시키는 환희도 천하제일의 강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놀지 않는 신념에 대한 애혹으로부터 솟구치는것이다.

력사의 전진운동을 고무추동하고 선도하는 주체조선의 자주정치도, 우리 조국의 막강한 위력도 그 밑바탕에는 절세의 위인의 억척같은 신념이 피줄기처럼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혁명의 길은 혁명위업의 승리와 미래를 굳게 믿는 신념의 강자들만이 걸어갈수 있습니다.》

정치가의 신념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승패를 좌우한다.

겹음겹음이 곧 승리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력사는 우리의 위엄은 정의의 위엄이고 그 어떤 적과 싸워도 무조건 이길수 있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만년 높이 모신 태양의 나라,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이 빛발치는 우리 조국이 제일 위대하고 훌륭하며 수령님들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내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 무강번영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혁명적의지이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력사적인 해, 황홀한 금만 같이 흐른 격정의 날과 날을 돌이켜보는 천만의 가슴에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버려주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지만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에게는 돌풍이 되여 두서울 철추를 내리는 백두의 칼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력사가 깃들어있고 필승불패하는 조선의 정신적기둥이며 백절불굴하는 사상적힘의 뿌리인 혁명의 성산 백두산.

언제 어디서나 백전백승의 의지를 안겨주며 그 어떤 역경도 순경으로 만드는 영웅적배심을 키워주는 기적과 행운의 성산 백두산.

지난해 12월 산같이 쌓인 강설을 헤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억년 드놀지 않는 백두의 신념과 의지로 순간도 굴함없이 험난한 개척의 천만고비를 돌파한 격동적인 나날을 감회깊이 회억하시며, 그 자랑찬 영웅적추억과 더불어 크나큰 용지를 안으시고 장군봉마루에 오르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천하를 굽어보는 백두산에는 력사의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이 땅에 불어오는 온갖 역풍들을 백두의 칼바람으로 산산이 부서버리시는 천하제일명장을 높이 모신 영웅조선의 힘을 막을자 이 행성에 없다는 승리의 희열이 끓어번지고있었으며 백두의 해돋이마냥 밝고 창창한 주체조선의 미래가 눈부시게 빛발치고있었다.

위대한 력사의 메아리인양 장군봉마루를 거니시는 그이의 발걸음소리가 천고의 밀림을 흔들며 장중히 울리였다.

장풍을 치뚫고 높이 솟은 아아한 절벽들, 눈부시게 아득한 천리수해…

모질게 광란하는 행성의 어지러운 바람에도 흔들림없이 백두의 억센 기상으로 용감무쌍히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안고 가없이 펼쳐진 백두의 밀림이 파도쳐설레였다.

절세의 영웅, 민족의 위대한 은인이신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정에 새기신 력사적인 행보는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더 높이 떠올리실 원대한 뜻과 주체조선의 앞길에 최후승리의 려명을 앞당겨올 신념을 굳히신 성스러운 장거였다.

그 뜻, 그 신념을 안고 맞이하신 뜻깊은 새해의 첫날 아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2018년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승리의 해로 될것입니다.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이 시작되는 이 시각 인민의 지지를 받고있기에 우리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신으로 나는 마음이 든든하며 전력을 다하여 인민의 기대에 기어이 보답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됩니다.

하늘땅을 뒤엎는 폭풍속에서도 백두의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매일, 매 시각 비상한 정치실력을 과시하시여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민족존엄, 민족번영의 최전성기를 펼치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드놀줄 모르는 불변의 혁명적신념과 하늘이 무너지면 그 하늘을 떠받들어서라도 승리의 대통로를 열어제낄 강인담대한 배짱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안아오신 반만년민족사의 대승리이다.

신념의 강자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

세계정치사에 길이 빛날 력사적인 올해는 한번 다지신 맹세, 한번 선례하신 목적, 한번 들어서신 주체혁명의 길에서 0.001mm도 탈선하지 않으시려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이 비범한 신념과 의지가 최대로 분출된 참으로 의미심장한 승리의 해이다.

위대한 승리자들이여, 우리 정건한 마음으로 력사적인 올해를 돌이켜보자.

우리 혁명에 있어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시련과 난관의 고비가 겹겹으로 막아나섰다.

그처럼 엄혹하고 시련에 찬 가시덤불길을 헤치면서도 올해 우리는 오직 백전백승하는 하나의 력사, 승리의 력사만을 혁명사에 새기였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으로 력사의 광풍을 맞받아나가시는 걸출한 령도자를 모신 인민의 행운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혁명유산인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어떻게 세계의 중심에서 빛을 뿌리고있는가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애국헌신으로 최후승리의 려명이 어떻게 밝아오는가를 우리 다같이 심장으로 절감한 격동적인 해가 아니던가.

우리 인민을 존엄높은 인민으로 세계의 중심에 당당히 세워주시고 우리 조국이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지 않고 주체의 궤도를 따라 확신성있게 줄달음치게 해주시였으며 정력적이고 눈부신 명도로 온 나라에 사회주의건설대전의 창조열풍이 거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반만년민족사가 길이 칭송할 뜻깊은 올해에 우리 조국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는 불멸의 존함그대로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상한 신념의 산아이고 원수님께서 펼치신 탁월한 정치의 위대한 결정체이다.

위인이 발산하는 빛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대한 진폭으로 만민의 심장에 스며들어 강렬한 여운을 남기기마련이다.

뜻깊은 올해 우리 조국에서 일어난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는 력사의 행운으로 우리 다같이 사무치게 새기지 않았던가.

신념의 최강자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민족의 최대의 긍지이고 혁명적자부심이라는 혁명사의 정의를.

이런 끓어넘치는 긍지와 더불어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극적인 사변들이 우리 조국에서 련이어 일어났다.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선 우리 조국의 경이적이고 눈부신 현실을 목격하며 세계는 격찬하였다.

세계의 모든 눈과 귀가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로 향한것은 원수님께서 지니고계시는 특출한 혁명적신념에 대한 애혹때문이였다.

그 열광적인 애혹의 눈길로, 달아오른 심장으로 세계는 주체조선, 강용한 민족의 백절불굴의 정신력의 원천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그리고 산악같은 진리를 새겨안았다.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정치가의 신념이야말로 최강의 국력이라는것을.

그렇다.

최후의 승패는 최첨단군사기술력에 의하여 좌우되는것이 아니라 혁명을 이끄는 령도자의 신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격동으로 흐른 날과 달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눈앞에 경애하는 원수님과 심장의 박동을 함께 하며 세기를 주름잡아 노도의 기상으로 달려온 신념의 대오, 그 장엄한 철의 흐름이 눈시울뜨겁게 밝혀온다.

조성된 정세가 엄혹하다고 하여 우리의 신념의 대오는 가만히 앉아 좋아지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다. 남이 무엇을 가지다줄것은 더욱 바라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의 충천한 기세를 계속 앙양시켜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신념의 호소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뜨거운 심장으로 화답하였다.

온 나라를 종횡무진하시며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무강조국을 일떠세울 신념의 불길을 활화산처럼 지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백두대지, 갈마전역을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위대한 당을 따라 주체의 한길을 억척같이 걸어갈 불굴의 기상이 용암처럼 끓어번지였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전도는 무엇을 보고 확정할수 있는가.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어제와 오늘, 래일은 명실공히 신념의 폭발기이며 전성기이다.

신념으로 시작되고 신념으로 끝나는것이 혁명가의 인생이라는것을 우리는 책에서 배우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혁명의 길은 하루이틀 가야 할 길이 아니며 순탄한 길도 아니다. 그 길에는 시련과 난관도 많고 예견치 않았던 가시덤불이 가로놓일수도 있다.

불속에서 장검을 벼리듯 전대미문의 고난속에서 우리의 신념은 더욱 억세게 벼려졌다.

전체 인민을 우리 혁명의 전세대가 지녔던 불굴의 신념을 이어받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그 길에서 한치의 탈선과 주저도 모르는 견결한 투사로 준비시켜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굴의 신념을 빼여 세기고 사는 사람, 자나깨나 원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신념의 강자이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때보다도 철의 대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이 불길처럼 타번지고 원수님의 두 쟁기상과 본때로 노도와 같이 전격해야 할 격동적인 시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면 사회주의에 대한 사랑도 천백배로 끓고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존엄높은 인민의 영예도 더욱 높이 떨칠수 있으며 최후승리의 주로를 따라 확신성있게 돌진할수 있다.

누구보다 신념이 강한 우리 인민이 누구보다 높이 올라서고 누구보다 흥하게 되는 그날을, 주체조선의 최후승리를 세계는 반드시 력사에 기록할것이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적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강행군길에 새겨진 감동깊은 화폭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불멸주야의 초강도강행군길에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화폭들이 수없이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입니다.》

주체87(1998)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 희천시를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산간도시의 넓지 않은 도로를 따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달리고있었다. 그 승용차를 알아본 인민들이 그이를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물밀듯이 차를 따라섰다.

참으로 격정없이 대할수 없는 감격적인 화폭이였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모습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목메여 따라서는 인민들을 뜨거운 시선으로 바라보시였다.

그이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신채 차창을 내려우시고 인민들에게 따뜻이 손저어주시였다.

앞장에서 달려오는것은 주로 청년들이였다. 그들은 주먹으로 눈굽을 훔치면서 자애로운 어버이의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뵈오려고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운전사에게 숨찬 청년들이 만세를 부르며 차에 달려오는데 그냥 지나칠수야 없지 않는가, 우리가 시간이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면 저 청년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차를 천천히 몰라고 하시였다.

승용차의 속도는 늦추어졌다.

청년들과 인민들의 환호성은 더욱 더 커져 높낮은 산발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더 따뜻이 손저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곁에 앉아 눈시울을 적시고있는 일군에게 깊은 감동에 젖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내가 탄 승용차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면서 달려오는 인민들의 감정은 지어낼수도 없고 돈을 주고 살수도 없는것입니다. 이것은 당과 인민이 한마음으로 굳게 뭉친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심단결의 참모습입니다. …

그리도 절절한 마음을 안고 따라서던 인민들이 아득히 멀어졌으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도록 차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이날 우리 장군님과 인민들사이 혈연의 관계를 보여주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일군의 가슴속에는 세찬 격정의 파도가 일었다.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자기 령도자를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인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정녕 그날의 모습은 일심단결된 우리 사회에서만 있을수 있는 가슴뜨거운 화폭인것이다.

본사기자 림 정 호

김 영 남 동 지 가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는 2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방문하여온 밤방 히엔드라스또 주조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외무성 부상 신홍철동지와 인도네시아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평양제1백화점에서—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신천군 호암협동농장 제3작업반 당세포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 누구나 그이의 숭고한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고있다.

당세포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도서들에 대한 독보와 해설모임, 연구발표모임 등을 주별, 월별계획에 따라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또한 《못 잊을 삼일포의 메아리》를 비롯한 노래보급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항일혁명투쟁과 새 조국건설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을 충직하게 받들어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새기고 어머님의 빛나는 귀감을 실천에 적극 구현하도록 하고있다.

세포안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처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몸 다 바쳐갈 일념을 안고 탕면한 영농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박 영 희

부강조국건설의 길에서

구월산을 찾으신 날에

주체86(1997)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의 문화유원지로 훌륭히 꾸려진 구월산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일만경치를 한품에 안고 하늘높이 치솟은 명산의 절경과 주변일대를 부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단폭포용벽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이 용벽에 새겨놓은 글발을 보신것이다.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해 1997》

잠시 글발을 읽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길지 않은 이 글에 조국의 미래에 대한 우리 병사들의 사랑과 확신이 뜨겁게 비껴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병사들이 쓴 글을 보니 새 힘이 솟는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 글에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우리 병사들의 참된 인생관과 혁명적랑만의 세계가 그대로 비껴있다고,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를 그려보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병사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시였다.

군인들이 써놓은 길지 않은 글발에서 병사들의 광만의 세계를 헤아려보시며 래일의 승리를 더욱 확신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승엄히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이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월산유원지는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로동당시대의 귀중한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군인건설자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천년책임, 만년보증

주체99(2010)년 11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이날 완공된 조압수조를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분투한 병사들의 위훈이 깃들어있는 이런 창조물이 지하에 있다는것을 우리 당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이어 물길굴을 돌아보고 나오시던 그이께서 조압수조 앞마당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갱입구에 새겨져있는 글발을 집도록 바라보시였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이윽고 그이께서는 지난 4월 조압수조공사장을 돌아볼 때 본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를 조압수조로 들어가는 갱입구에 게시하였는데 이 구호는 아주 좋은 구호라고 하시면서 이 구호에 조국의 미래를 위한 투쟁에서 믿뿌리가 되려는 병사들의 숭고한 미래관이 힘있게 맥박치고있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정녕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였다. 한치한치의 물길굴을 뚫으며 우리 장군님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받드는 길에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친 군인건설자들의 고결한 충정과 의리, 량심의 결정체였다.

인민군군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어려있는 구호를 바라보는 일군들의 심장마다에서는 이런 해침이 터져나왔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군인들이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참된 인생관을 지닌 투사들로 자라날수 있었습니다!

고 철 명

과학, 교육, 보건사업은 제일 중시하여야 할 사업

오늘 우리 당은 나라의 과학교육사업을 국가발전의 중요한 문제로, 혁명의 제1차적요구로 내세우고있으며 보건부문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여기에는 우리 혁명의 전진을 가속화하고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 우리 당의 용지가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제일 중시하여야 할 사업은 과학, 교육, 보건사업입니다.》

과학, 교육, 보건사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힘을 넣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인재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되는 인재중시의 시대이다. 오늘날 나라들사이의 국력경쟁에서 기본의 기본은 과학기술경쟁이며 그를 안받침하는 교육경쟁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교육의 발전속도이자 사회주의건설의 전진속도, 나라의 발전속도라고 할수 있다.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은 자체의 과학기술력에 의거한 자력갱생대진군이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남의 덕으로 자기 앞길을 개척해나가려는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 자강력이다. 과학기술발전을 중시하고 앞세울 때 우리의 자강력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현시기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직접적담당자인 과학기술인재들을 육성해내는 교육사업에 의하여 담보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결코 가시적인 성과나 이룩하고 눈앞의 리익을 얻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다. 우리가 경제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적혁신을 일으켜나가자면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하며 이것은 교육사업을 통해서만 그 성과가 더욱 공고해지게 된다. 교육사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힘을 넣어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과학기술인재들이 바다를 이루게 되고 과학기술의 기관차가 힘차게 달릴수 있다.

보건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참가하는 전인민적인 총공격전이며 대중이 적극적으로 발동되여야 생산적앙양을 이룩할수 있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능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는데서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보건사업에 힘을 넣을 때 경제건설대진군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과학, 교육, 보건사업을 중시하는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존엄떨치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라는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조국의 발전잠재력, 전망이 그 어느 나라에 비할바없이 무한대이고 창창한것이다.

교육과 보건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상이다. 우리 나라 교육제도, 보건제도와 같이 가장 훌륭한 제도, 인민을 위한 제도는 세상에 없다. 보석도 닦아야 빛이 나는 법이다. 결코 인민적시책들이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말로만 되여서는 안된다. 교육, 보건사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힘을 넣어야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인민적시책들이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상이 빛나게 된다.

오늘 우리 당은 교육과 보건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부문으로 내세우고 교육, 보건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여기에는 인민들의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실생활을 통하여 느낄 때 인민들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칠것이다.

사회주의의 존엄과 위상은 우리 당의 과학중시정책에 의하여 굳건히 담보된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이 더욱 가증되고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전선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을 힘있게 과시하기 위한 제일 척후전선이다. 나라의 교육과 보건도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할 때만이 급속히 발전할수 있으며 우리 나라 인민적교육제도,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과학기술중시와 발전은 경제기술적우세에 의거한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지름길이다.

과학, 교육, 보건사업을 중시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창창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강국이라면 마땅히 력사의 한 시기가 아니라 년대와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번영하는 나라이여야 한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나라인 동시에 우리의 후대들이 자자손손 존엄높은 삶을 누리는 국가이다.

과학교육사업은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과학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나라의 지식자원, 과학기술적잠재력을 튼튼히 다져 국가의 무궁번영을 실현할수 있다.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갈 믿음직한 계승자,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키워내는 교육사업 역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직결된 중대한 사업이다.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켜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 등을 선진수준에 올려세울 때 두뇌전, 기술전으로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인재대군을 부단히 육성할수 있으며 주체조선이 세세년년 강국으로 존엄떨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창창한 미래는 보건사업을 통하여 더욱 확고히 담보되게 된다. 국가는 숭고한 사상정신, 풍부한 지식과 함께 건강한 체력을 지닌 인민의 창조적투쟁에 의해서 끝없이 강대해진다. 보건사업을 발전시켜 우리의 보건을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 세계적수준의 보건으로 되게 하여야 우리의 후손들이 누구나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창조적능력을 최대로 발휘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과학, 교육, 보건사업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우리 혁명의 전진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홍 진 혁

백절불굴의 정신력으로 조국의 영예를 떨친 세계적인 체조강자

올림픽금메달수상자이며 3중세계선수권보유자인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리세광선수에 대한 이야기

평화시기에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영예를 두어깨에 걸머지고 세계무대에 공화국기발을 휘날려야 할 사람들은 우리의 체육인들이다.

하다면 그렇듯 무겁고도 책임적인 사명을 지닌 우리 체육인들은 오늘날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심장이 고동치고 어떤 각오와 의지로 순간순간을 이어나갈 때 조국의 기대와 인민의 믿음에 보답할수 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경기에 나가 우승하여 공화국기를 날리는 체육인들은 참다운 애국자이고 영웅이며 멋쟁이들입니다.》

군인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다부진 육체와 두눈에 넘쳐나는 정기, 자신만만한 배심이 어려오는 침착한 행동거지와 맹호와 같이 경기장을 달리는 담찬 기상, 완전무결한 동작수행…

이것이 텔레비죤을 보면서 누구나 눈에 익힌 리세광선수의 모습일것이다.

그처럼 강철같이 단단한 육체와 왕성한 혈기로 어머니조국에 승리의 금메달들을 안아온 리세광선수가 한때 기계체조선수로서의 전도를 놓고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었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2년전 3월 1일이였다.

아침부터 훈련에 열중하던 리세광선수는 물, 안마훈련을 마친데 이어 평행봉에 올라섰다.

힘차게 발을 굴러 거꾸로서기, 뒤로 회전, 앞으로 회전…

뜻밖의 일이 벌어진것은 그때였다. 공중돌기를 성공하고 내리뛰려던 찰나 그는 평행봉에 무딪쳐 손가락에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되였다.

당시 의료연구사였던 김성실동무가 긴급처치를 해주었지만 그는 더이상 훈련을 할수가 없었다.

그 시각 자기의 전도를 놓고 의사들과 감독들, 일군들이 얼마나 괴로와하는가를 그는 알수 없었다.

리세광선수가 앞으로 철봉과 평행봉, 물, 안마와 같은 기재운동을 다른 선수들처럼 높은 수준에서 해낼수 없다는것이 명백해졌던것이다.

어느날 김재식감독이 그와 마주앉았다.

《세광동무, 의학적결론에 의하면 동무는 앞으로 다기재선수로는 필수 없소. 조마운동은 할수 있지만… 아마 힘들거요.》

그러면서 감독은 아직 젊었는데 선택의 길은 많으니 잘 생각해보라고 걱정어린 어조로 말하였다.

리세광선수는 자기의 상한 손가락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못했다. 기계체조에서 어떻게 하나 성공해보려고 14년동안이나 애써온 노력이 허사로 된다고 생각하니 억이 막혔다.

(아, 이렇게 물러서야 하는가. 이 손가락 하나때문에!)

그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조마는 리세광선수가 제일 힘들어하는 종목이였다. 처녀시절 락하산을 탔던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어릴적부터 우에서 뛰여내리기를 좋아하던 그가 한번은 높은 곳에서 뛰여내리다가 다리를 다쳤었다. 그때 살을 꿰맸다, 주사를 맞는다 하는통에 혼쌀난 이후로는 높은 곳이라면 자신이 없어했다. 체조를 배우면서 담을 많이 키우기는 했지만 공중에서 기교를 수행해야 하는 위험한 조마운동만은 익숙하기 어려워했다.

(그런 네가 이런 손을 가지고도 조마에서 꼐 성공할수 있을가?)

그는 끝내 대답을 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과학연구사업으로 나가살다싶이 하던 아버지가 바쁜 시간을 내여 집에 들어왔다.

《그때 이젠 물러날셈이냐?》

배짱수선수처럼 기어이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쁨을 안겨주겠다고 외우던 그였기에 차마 입을 열수 없었다. 이윽토록 대답이 없이 고개를 숙이고있는 그의 귀전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리수복영웅은 원래부터 화구를 박차고 태여난 사람인줄 아느냐? 조군실영웅은 짧다리가 성해서 고지를 지켰다더냐? 어깨우에 별을 단 군인이라는게…》

《…》

《너야 전장에서 살고 전장에서 쓰러져야 할 군인이 아니냐.》

그날 밤 리세광선수는 잠을 이룰수 없었다. 피로감에 모대기던 그는 자기의 손때묻은 훈련일지들을 펼쳐들었다.

군복을 입은 첫날 훈련과 경기마다에서 병사답게 용감하리라고 씨놓았던 글발이 아프게 가슴을 허비였다. 당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체조에로의 첫걸음을 내짚고 체조와 함께 울고웃으며 걸어온 나날이 돌이켜졌다.

어릴적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해빛밝은 훈련장에서 체조훈련을 하던 나날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절이였다. 철부지였던 자기를 한걸음한걸음 체조의 용감한 세계에로 이끌어주던 소조지도교원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처음 군복을 입던 일도 어제일이런듯 삼삼히 떠올랐다.

4.25체육단으로 떠나는 날 아버지는 그의 군복을 어루쓸며 말하였다.

《세광아, 이 군복을 입고 청춘시절 아버지, 어머니는 조국을 지켰다. 너는 이 군복을 입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조국의 존엄과 영예, 아직은 그 말뜻을 다 리해할수 없었던 나이였지만 그때 그는 자기의 꿈과 포부가 바로 그 군복과 함께 실현될것이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체육단에서의 훈련 첫날부터 그는 두각을 나타냈다. 남보다 앞서지 않고서는 잠을 자지 못하였고 명절날과 휴식일에도 스스로 내세운 훈련과제를 수행하고서야 마음을 놓았던 그였다.

길로지에 《1997년 2월—2002년 10월》이라고 씌어진 훈련일지를 한장한장 번져가던 그의 눈길은 어느 한 페지에서 멈춰섰다.

《1998년 2월 10일. 육체훈련 경기장계단오르내리기 5번, 속도달리기 60m 5번…》

군인체육인다운 완강한 투지를 키우던 훈련의 날들가운데서 가장 잊지 못할 하루였다.

그날 국내경기를 앞두고 5월1일경기장에 이동훈련을 나온 리세광선수를 비롯한 6명의 선수들은 송순봉감독의 지휘밑에 한다리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훈련을 하게 되였다.

시간이 흘러 육체적능력이 한계에 이르자 선수들이 한명한명 주저앉았다. 힘겹게 계단을 오르던 리세광선수도 털썩 주저앉았다.

몇초나 흘렀을가. …

《일어섯!》

감독의 웨침에 리세광선수는 습관적인 대렬동작을 위하며 벌떡 일어났다. 온몸의 힘을 다시 모아 다리에로 뻗치며 그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날 오직 리세광선수만이 수백개나 되는 계단오르내리기훈련과제를 다 수행하였다. 한계단한계단 이렇게 극한점을 정복할 때마다 가슴속에 차오르는 긍지와 자부심은 그를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분발시켰다.

남보다 이악하고 성실하게 훈련한 보람이 있어 리세광선수는 남자기계체조종목의 6가지 운동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국내경기에서 여러개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개인종합순위에서도 앞자리를 차지하군 하였다. 하여 그는 같은또래의 선수들보다 3년이나 먼저 어깨우에 별을 달았다.

그는 아픈 마음으로 훈련일지의 마지막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그가 손가락을 상한 후 훈련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보름동안이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육체적부담이 매우 큰것으로 하여 체육선수들은 도중에 물러서는가, 성공을 위하여 계속 앞으로 나가는가 하는 운명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리세광선수는 끝내 자신을 이겨냈다.

군인은 심장이 살아있는 한 자기의 진호를 떠날수 없으며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도 짱그리 바쳐 체육전장에 공화국기발을 휘날려야 함을 자각한 그의 가슴속에서는 새로운 활력을 되찾은 심장의 박동소리가 울리고있었다.

온밤을 뜬눈으로 새운 그는 다음날 훈련장에 다시 나섰다.

그는 잃은 시간을 모두 되찾으려는듯 무섭게 훈련에 달라붙었다.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조건에서 구간누워밀기, 한손철봉헌수, 구간들기 등 상체와 다리힘을 발탁시키는데 훈련을 집중하였다.

조마운동경기를 할 때 남자선수들의 발림거리는 25m, 발자욱으로 보면 보통 열다섯발자욱이며 동작시 선수가 날아오르는 공중높이는 대략 3m, 동작수행시간은 약 5초이다.

리세광선수는 바로 그 열다섯발자욱을 리수복영웅이 불렀는 적화점을 향해 돌진한 최후의 열다섯발자욱으로, 동작수행의 5초를 김영조영웅이 보여준 최후의 25초의 한 부분으로 간직하고 훈련장에 나섰다.

훈련과정에 그는 부상도 여러번 입었지만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다시 일떠서군 하였다.

5초, 그 한순간을 위해 청춘시절을 짱그리 다 바치는 한이 있어도 기어이 조국에 금메달을 안아올 그의 각오와 의지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체육선수이기 전에 용감한 조선인민군 군관이였으며 세계의 하늘가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기 전에는 물러설수 없는 병사였다.

드디여 그의 어깨우에 빛나는 별과 금메달이 하나로 합쳐진 날은 오고야말았다.

리세광선수는 그해 12월에 진행된 제15차 아시아경기대회 기계체조 조마운동에서 첫 국제경기금메달을 안아왔던것이다.

첫 국제경기금메달, 그것은 체조무대에서 사라질번 하였던 한 군인체육인이 전화의 영웅들의 백절불굴의 정신세계에 자신의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다시 일떠서 순간순간을 초인간적인 의지와 상상을 초월하는 완강한 노력으로 안아온 용감성의 결정체였다.

첫 국제경기금메달과 더불어 리세광선수의 어깨우에서는 또 하나의 별이 빛나게 되였다.

《이 별이 크지 않아도 결코 금메달보다 가볍지 않소.》

상위의 군사칭호를 받던 날 감독이 그에게 한 이 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킨 용감한 군인체육인의 선수생활 전 과정을 관통하는 좌우명으로 되였다.

세계를 압도하는 우리의것을 창조하라

《리세광선수처럼 훌륭한 선수를 가지고 있는 조선이 부럽다.》

이것은 리세광선수가 2014년 10월에 진행된 제45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였을 때 세계체조계에서 울려나온 찬탄의 목소리이다.

누구나 쉽게 올라설수 없는 승리의 상상봉에 올라선 리세광선수, 그는 어떻게 제노라 하는 조마강자들을 물리치고 세계패권을 쥐였는가.

2007년에 진행된 제40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리세광선수는 조마운동에서 3등을 하였다. 세계적인 강자들과 대결하여 주눅이 들지 않고 그만하면 경기를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리세광선수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난도높은 동작들을 펼쳐보일 때 난도가 낮은 동작으로 그에 대응한 자신이 한스러웠다. 더우기 그의 가슴을 아프게 짓누른것은 다른 나라 선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동작을 수행하다가 실수한 자신에 대한 불만감이였다.

당시 그가 수행한 동작은 로므니아선수의 이름으로 된 난도 5.6의 동작이였다. 그 동작도 실은 간단하게 숙련하여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안아왔었는데 세계적인 조마강자들은 그쯤한 동작은 다 수행할수 있었다.

(남이 창조한 동작을 모방하여 세계패권을 쥐려 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리세광선수는 그때 세계와 경쟁하자면 자기가 창조한 동작, 자기식의 난도높은 동작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조국에 돌아온 그는 리만섭책임감독과 함께 새로운 난도의 동작을 창조하는데 달라붙었다. 고심어린 탐구끝에 이들이 구상한것은 앞전회 앞공중 몸굽혀 세바퀴 돌며 옆으로 180° 돌기동작이였는데 이것은 누구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고급한 동작이였다.

그가 동작완성을 위하여 훈련에 진입하였을 때 모두가 걱정하였다. 원래 조마운동자체가 위험성이 많은데다 착지할 때 발목에 대단히 큰 힘이 실리는데 리세광선수가 수행하려는 동작은 다른 동작들에 대비할수 없는 큰 힘이 발목에 실리게 되여있었던것이다.

하지만 리세광선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동작, 세계를 압도할 동작을 창조하기 전에는 물러설 잡도리가 아니였다.

그는 휴식시간이면 종이장에 자기가 수행할 동작들을 그려보며 동작수행의 요령에 대하여 생각하였고 동작수첩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의 훈련정형을 똑똑 기록하군 하였다.

발구르기와 손구르기자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침일찍 남먼저 일어나 훈련하였고 탄력망에 올라 한동작한동작을 익혀나갔다.

육체적준비가 좋은 그였지만 성공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몸을 돌보지 않고 정력적으로 훈련하던 어느날 그는 또다시 발목을 상하게 되였다.

발목에 붕대를 감아주던 리만섭책임감독이 몹시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런 의견을 제기하였다.

《세광이, 동작의 난도를 좀 낮출가?》

《예?…그건 집대로 안됩니다. 아무럼 세계를 압도할 조선의 동작이 그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세계의 그 어느 선수도 흉내낼수 없는 조선의 새 체조동작을 창조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나선 리세광선수에게서 다른 대답이 나올수가 없었다.

그의 굳은 각오앞에 내심 감복하며 책임감독은 저 혼자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코메배우들처럼 안전바를 차고 훈련할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자기가 자주 부상을 입는것이 얼마나 안타까왔으면 그런 말을 다 하랴 하고 생각한 리세광선수는 피씩 웃어보이며 말하였다.

《우리 조마선수들은 그걸 용감성으로 대신하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발목의 아픔으로 하여 그는 선뜻 훈련기재에로 다가서지 못하였다. 상한 발목을 아속하게 내려다보는 그의 뇌리에는 나라의 체조발전에 자기의 뚜렷한 자욱을 새긴 전세대 체조명수들의 이름이 떠올랐고 그들이 력사에 남긴 자취가 하나둘 눈에 밟혀왔다.

국제체조련맹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가장 독창적인 동작들은 그 동작을 처음으로 수행한 선수의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조선사람의 이름으로 명명된 체조동작들도 적지 않았다. 1970년대에는 철봉운동에서 《리송섭동작》이, 1980년대에는 안마운동에서 《리철원동작》과 고저평행봉운동에서 《김광숙동작》이, 1990년대에는 고저평행봉운동에서 《박경실동작》이, 2000년대에는 마루운동에서 《리정성동작》이 세계체조계에 등록되였다.

그런데 조마운동에서만은 아직 조선의 동작이 없었다.

(전세대들도 이런 슬탄치 않은 길을 걸어 새 동작을 창조하였을것이다.)

자기의 두어깨우에 얼마나 무거운 사명감이 지워져있는가를 다시한번 자각하며 리세광선수는 책임감독에게 절절히 말하였다.

《이 과제를 다음세대에 넘길수 없습니다. 리수복영웅이 다른 병사에게 화점을 맡기지 않은것처럼 말입니다.》

세계를 놀래우는 조선의 새 체조동작을 기어이 창조할 각오로 충만된 리세광선수를 보며 감독도 다시한번 용기를 가다듬었다.

《좋아, 그럼 훈련결과를 다시 분석해보자구.》

그들은 콤퓨터에 마주앉아 밤을 새워가며 탐구를 거듭하였다. 이 과정에 남보다 더 어려운 동작을 수행하자면 결정적으로 조약을 더 높이 하여 공중에서의 시간예비를 조성하여야 한다는것과 그렇게 할수 있는 비결까지도 마침내 찾아내고야말았다.

얼마후 리세광선수는 조마기재앞에 나섰다. 리만섭책임감독이 긴장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출발선을 박찬 리세광선수가 열다섯발자욱을 자신만만하게 내짚었다. 5초가 흘렀다. 이 짧은 순간에 그의 온몸, 온 정신은 하나로 융합되여 말그대로 리상적인 동작을 공중에 펼쳐놓았다. 마지막착지동작까지 주의깊게 지켜보던 리만섭책임감독은 환성을 지르며 리세광선수에게로 달려갔다.

《세광이, 드디여 해냈소. 해냈단 말이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창조의 날과 달이 바쳐졌던가.

그는 2012년에 진행된 제5차 아시아체조선수권대회에서 그 동작을 처음으로 펼쳐보여 우승의 단상에 올랐다. 세계체조계는 벌석 끓었다.

리세광선수는 몇십개의 금메달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의것을 창조함으로써 군인으로서 조국앞에 지닌 의무를 지켰고 전세대들이 물려준 바통을 이었다. 그리하여 2010년대에도 조선의 동작이 세계체조계에 당당히 등록되게 되였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다. 조마에서는 서로 다른 두개의 동작을 수행하여 점수를 총합하는데 그는 두개의 동작을 모두 새 동작, 조선의 동작으로 수행하고싶었다.

그가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새로 구상한 동작은 속전회 무릎굽혀 위로 두바퀴 돌며 옆으로 360° 돌기동작이였는데 제일 어려운것이 착지동작이였다.

이미전에 입은 발목부상으로 몹시 불편했지만 그는 절대로 훈련을 중단하지 않았다. 밤이면 붕붕 부어오른 발에 찬물과 더운물을 갈아대며 찜질을 하다가는 그대로 잠들군 한 날이 몇번인지 모른다. 온밤 신음소리를 내는 그의 곁을 감독이 지켜서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가중되는 훈련부담으로 온몸의 피가 부은 발목에 몰리며 마치 쇠꼬챙이로 쑤시는듯 아팠다. 그의 눈앞이 흐려졌다. 달아오른 얼굴, 비오듯 흐르는 땀…

안타깝게 이름을 부르는 감독들과 선수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어려왔다.

《세광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소리는 그를 의지의 힘으로 일으켜세우게 하는 자기자신의 마음속웨침이였다.

이렇게 매일, 매 순간 훈련장을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장으로 여기고 창조의 결사전에 나선 체조강자앞에 두번째 동작도 성공의 문을 열어주고야말았다. 리세광선수는 조선의 새 체조동작들을 창조하는데 7년이라는 20대의 귀중한 청춘시절을 바쳤다.

세계는 제45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리세광선수가 창조한 두개의 새로운 동작을 보게 되였다.

경기장에 나선 리세광선수는 자신만만하게 두번째 동작까지 정확히 수행하였다.

후날 《리세광동작1》과 《리세광동작2》로 명명된 이 체조동작들은 난도가 가장 높은것으로서 시작달리기로부터 공중에서의 돌기와 착지까지 속도가 빠르면서도 재치있는 련결동작을 배합한 최고급의 기술동작이였다.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착지까지 정확히 하고 두손을 들어보인 리세광선수가 그 자리에서 움직일념을 못하고 그냥 서있는것이였다.

관중들의 놀라운 눈빛이 그에게 집중되였다.

사실 그는 한주일전에 발목이 부상당한 상태에서 경기에 참가하였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동작수행이 끝나는것과 함께 참고참았던 아픔이 온몸에 엄습하였던것이다. 붕붕 부은 발을 도저히 내디딜수가 없었다.

강의한 의지로 한발을 내짚었으나 그것은 순간, 다시 그는 멈추어섰다. 마지막힘까지 짱그리 바쳐 눈부신 성공의 상상봉에 오른 리세광선수의 백절불굴의 정신이 어떤것인가를 세계가 똑똑히 보았다. 감독의 부축을 받으며 경기장을 내려서는 리세광선수의 두볼로 강자의 눈물, 승리자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세계는 이러한 리세광선수에게 아니 조선을 향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던것이다.

조선의 이름으로 세계체조계에 또 하나의 분수령을 만든 리세광선수, 신념의 강자일뿐아니라 창조의 능수인 그의 승리의 희열은 정녕 이 세상에서 제일 값비싼것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3(2014)년 10월 리세광선수를 비롯하여 여러 국제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그들이 거둔 경이적인 성과는 조선인민의 높은 존엄을 걸고 싸워 이긴 위대한 승리이며 경기들마다에서 보여준 완강한 투지는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상그대로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사랑, 그 믿음을 심장에 간직하고 그는 다음해에 진행된 제46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2016년에는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도 우승하여 10여년동안 그렇게도 바라던 꿈을 이루었다.

조선의 존엄을 걸고 창조한 《리세광동작》들은 이렇게 련이어 금메달을 낳았다.

어머니당에서는 조국앞에 실로 영웅적위훈을 세운 리세광선수에게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와 인민체육인칭호를 안겨주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으로서의 그의 삶을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여주었다.

조마왕의 깨끗한 량심—떳떳하라

리세광선수의 나이는 올해 33살이다.

얼마전에 진행된 제48차 국제체조련맹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남자선수들가운데서 리세광선수는 가장 나이많은 선수였지만 금메달을 들어올렸다.

남자기계체조선수들은 보통 27~28살이면 은퇴하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하다면 리세광선수는 어떻게 되여 체조선수로서는 은퇴하고도 남을 그런 나이에 또다시 세계선수권을 보유하고 승리와 영광의 단상에 오르게 되였는가.

우리는 리세광선수와 함께 생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리세광선수가 훌륭한 도덕품성과 깨끗한 량심을 지닌데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훈, 최경복, 송순봉, 김진, 김재식, 리만섭, 신명수…

이들은 리세광선수의 26년간에 달하는 훈련의 나날 그를 지도해온 스승들이다.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리세광선수의 인간적면모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나라도 더 해주고싶어 진지하게 추억을 더듬고 그의 훌륭한 품성에 대하여 명쾌하게 말해줄 적중한 표현을 고르느라 애쓰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긴 여운은 정말 컸다.

버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금메달개수가 늘어나고 명예가 높아져도 언제나 한모습, 한본새로 훈련하고 생활하는 훌륭한 인간적풍모는 조선의 체육영웅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그의 이러한 고상한 도덕품성은 어머니조국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당과 수령을 깨끗한 량심으로 받들어나가는데서 최고의 정화로 꽃피여났다.

지난 8월말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리세광선수는 순위권에 들지 못하였다.

청춘거리 경기기관에서 있은 경기대회총화모임이 끝난 후 어깨가 처져있는 그에게 한 일군이 물었다.

《세광동무, 이젠 선수생활을 그만두는것이 어떻소?》

이런 물음은 처음이 아니였다. 하지만 일군들의 그 진심어린 권고가 그때처럼 리세광선수의 가슴을 허빈적은 없었다.

일군들과 선배들이 나이는 속이지 못한다, 젊히 욕망을 앞세우다가 체면이 깎일수 있다, 훌륭한 선수들을 키워서 조국앞에 내세우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해줄 때마다 그는 머리를 가로저었었다. 지어 어떤 사람들이 세계선수권보유자가 국제무대에 나가 뢰보한 모습이나 보여준다면 망신이 아닌가고 말해줄 때에도 그는 아직 당의 사랑과 은정에 보답하려면 멀었다고 자신을 다잡군 하였다.

그런데 현실로 된 결과앞에서 할 말이 없었다.

올해 3월에 진행된 국제경기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를 두고 체조부문의 일군들은 세계적인 체조강자의 명예가 더 떨어지지 않게 8월에 진행되는 아시아경기대회에는 보내지 말자고 토론하였었다. 그런데 기어이 참가시켜줄것을 요구하는 그의 완강한 제기앞에 일군들이 물러섰던것이다.

그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기어이 우승하려고 훈련강도를 높였었다. 이미전에 부상당한 발목과 손목이 말썽을 부려 치료와 훈련을 동시에 내밀게 되였는데 육체적부담은 말할수없이 컸다. 게다가 신경통까지 겹쳐 결국은 빈손으로 조국에 돌아온것이다. 하지만 불편한 몸으로 경기를 치르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량심의 죄의식을 보상할수 없었다.

련이어 실패한 그로서는 일군들의 권고앞에 더는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경경기관을 나섰다. 마당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이 어린 승용차가 기다리고있었지만 그는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마음에 따라서지 못하는 야속한 자기 육체에 처벌을 내리는듯 상한 발을 끌고 내처 걷는 그에게는 발목의 아픔보다도 조국앞에 뻣뻣치 못한 가슴속 아픔이 더 컸다.

(정말 이젠 물러서야 하는가?)

착잡하고 피로운 마음을 달래며 그는 어느새 보통강반에 위치한 체육인살림집앞에까지 이르렀다.

《1층 3호 리세광》이라는 문패를 보는 순간 이 사랑의 집에 뻣뻣이 들어설수 없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7살때부터 자기를 애지중지 품을 들여 체육영웅으로 키워준것은 결코 그의 부모가 아니였다. 온갖 정을 쏟아부어 키워주고도 우승의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모든 영예와 행복을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려준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이 눈물겹도록 사무쳐왔다.

그는 차마 문손잡이를 잡을수가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국제경기에서 우승하고 돌아올 때마다 해빛처럼 흘러든 당의 사랑과 은정을 전하는 훈장들과 명예칭호증서들이 벽면이 좁다하게 걸려있을것이다. 당 제7차대회와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계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뜻깊은 기념사진은 또 얼마인가.

(그 사진속의 행복한 리세광선수가 어제가 속 늙어진 지금의 리세광을 본다면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그의 눈앞에는 주체93(2004)년 5월 1일 위대한 장군님의 훈련지도를 받던 영광의 시각이 떠올랐다.

새 체육기재들을 품을 들여 마련해주시고 몸소 리세광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의 동작수행을 하나하나 지도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지는 그 사랑에 보답할 한마음으로 총정의 훈련길을 걸어온 그였다.

그는 발걸음을 경경기관으로 다시 돌려세웠다.

(육체가 따라 못 서도 훈련장은 떠나지 않으리라.)

설사 은퇴한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훈련장을 떠나지 않는, 쓰러지는 순간까지 고지를 사수하는 군인의 모습을 새 세대 선수들에게 남기고싶었다.

능력이 다할 때까지 훈련 또 훈련!

심장이 뛰는 한 보람 또 보람!

이런 각오를 안고 그는 다음날부터 훈련장에 또 나섰다. 전혀 딴 사람이 된듯 한 그의 훈련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10년전의 전성기가 다시 오지 않았는가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그에게 은퇴를 권고했던 일군들도 다른 눈으로 그를 보게 되였다.

기계체조협회의 일군들은 그를 11월에 진행되는 제48차 국제체조련맹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 참가시키기고 일치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어머니당과 조국의 사랑과 믿음에 온넋을 다 바쳐 심장이 다할 때까지 보답하려는 리세광선수의 높은 총정심과 애국심, 체육인으로서 선수생활의 마지막을 보다 뜻뜻하게 빛내고싶어하는 그의 깨끗한 량심을 믿었던것이다.

그가 사랑하는 안해와 귀여운 아들이 있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훈련을 한다고 탓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선수들과 꼭같이 규정대로 생활하였다. 명절날과 일요일에도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신입선수시절처럼 금욕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어쩌다 집에 사정이 있어 갔다가도 그날 저녁에는 돌아와 다음날 새벽 어김없이 아침운동에 참가하였다.

그의 겸손하고 성실한 훈련태도는 한계를 초월한 의지로 분출하여 훈련장에 고귀한 땀방울로 새겨졌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량심의 샘줄기에서 흘러나온 그 땀방울들은 바치고바쳐도 모자라는듯 끝없이 뿌려졌다.

백절불굴의 정신력의 강자인 조선의 리세광선수는 마침내 3중세계선수권보유자로 세계앞에 당당히 나서게 되였다.

지난 11월 3일, 싸라트의 수도 도하에서 함흥색공화국기가 높이 오르던 그 시각 리세광선수의 심장속에서는 조국의 영예를 또다시 빛내인 승리의 희열이 끓고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무서운 돌풍을 련이어 일으키고있는 세계적인 조마강자 리세광》, 《세계적인 조마강자 리세광선수는 줄곧 신비로운 존재로 간주되고있다.》 등 격찬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공화국기발을 향하여 우승의 시상대에서 4.25체육단 기계체조선수 리세광동무가 드린 승리의 경례는 바로 조국의 고지를 영용히 지켜 싸운 한 전사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삼가 올리는 충정의 보고였으며 자기의 가정과 고향의 친구들, 동지들과 스승들앞에 깨끗한 량심으로 드리는 떳떳한 인사였다.

체육인의 명예는 단 한개의 금메달로도 얻을수 있으며 실사 그것으로 은퇴한다 하여도 명예에는 손상이 가지 않는다. 리세광선수가 자신의 리익이나 명예만을 생각했다면 이미 은퇴하였을것이다. 하지만 그는 저 하나만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처럼 많은 부상을 당하고 그처럼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한두번의 위훈이 아닌 계속혁신, 계속전진, 계속승리의 공적을 세우고도 량에를 줄지 않고 새로운 승리만을 생각하는 리세광선수, 어머니당과 조국앞에 더 뜻뜻이 살고싶어하는 그의 위치는 지금도 여전히 강도높은 훈련으로 날과 날이 이어지는 훈련장이다.

《조국이여, 나의 심장이 뛰는 한 승리의 금메달을 기다려달라!》

군인의 선서마냥 피끓이는 이 뜨거운 맹세를 스스로 심장에 새아박고 리세광선수는 이 시각도 충성과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고있다. 이 깨끗한 량심은 우리의 조마창을 조국앞에 보다 뜻뜻하고 장한 모습으로 나설수 있게 할것이다.

* * *

우리는 리세광선수에 대한 취재과정에 우리의 체육인들이 쟁취하는 금메달 하나하나가 어떻게 간고하게 마련되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

당과 조국, 인민의 기대를 심장에 새겨안고 순간순간을 완강한 공격정신과 비상한 창조정신, 깨끗한 량심으로 불태우는 백절불굴의 투사, 참된 애국자, 훌륭한 인간만이 조국앞에 련이은 금메달을 안아올수 있으며 온 세상이 우러러보게 우리의 공화국기를 휘날릴수 있다.

모든 체육인들이 리세광선수처럼 훌륭한 정신세계와 고상한 도덕품성, 강의한 훈련기풍으로 자신을 준비해나간다면 누구나 자기 종목에서 제권자로, 강자로 이름떨칠것이다.

어머니당과 조국은 이런 미더운 체육인들을 평화시기에 국제무대에서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는 체육영웅으로 값높이 내세워주고있으며 온 나라 인민은 그들을 우리 국가의 보배로, 자랑으로 두고두고 기억한다.

본사기자 주령봉
본사기자 강효심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높이

쌀로써 당을 받들어갈 일념안고 전국의 앞장에 선 다수확자, 다수확단위들

황남땅이 자랑하는 실농군들

농사를 잘 지어 알곡생산성과로 조국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오늘날 당이 바라는 참된 애국농민이다.

황남땅에도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 다수확을 낸 실농군들이 많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사일을 잘하여 알곡증산으로 당을 받들고 조국에 헌신하는 사람이 당의 충직한 농업전사이고 내 나라의 참된 애국농민입니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 지어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이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벌이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도안의 농장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땅에 유기질성분이 많으면 화학비료를 적게 치고도 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

벽성군 읍협동농장 제2작업반 3분조 리복화동무는 거름생산실적이자 알곡증산성과라는것을 명심하고 질좋은 거름생산에 힘을 넣었다. 사실 낟알질속에는 적지 않은 량의 비료성분이 들어있다.

이것을 놓치지 않은 그는 낟알짚으로 거름을 생산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 거든 한평한평을 삐심들여 갈구라.

오늘날 애국농민의 첫째 징표는 땅을 제살점처럼 사랑하는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담당포전에서 나오는 낟알짚을 모조리 분쇄한 다음 진거름과 섞어 현장에 만들어놓은 퇴적장에 무저놓았다. 그가 생산하여 포전에 낸 거름의 량은 무려 정보당 30t이상 되였다. 그것이 올해농사에서 큰 은을 내여 알곡생산에서 앞장설수 있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자각안고 쌀로써 당을 받들어나가는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할 불타는 열의밑에 **삼천군 추룡협동농장 제6작업반 3분조 최관룡동무는** 담당포전의 지력을 개선하기 위해 수심리김을 오가며 진거름을 날랐다.

또한 100여t의 풀을 베여 생산한 질좋은 거름을 정보당 30t이상 냄으로써 다수확농민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현대농업발전추세에 맞게 영농방법을 혁신하는데 알곡증산의 중요한 예비가 있다.

이것은 앞선 영농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올해농사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청단군 청정협동농장 제5작업반 3분조 유경옥동무가** 한 말이다.

올해에 그는 우월성이 뚜렷이 확증된 여러가지 새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그는 오늘날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알곡생산량을 늘일수 없다는것을 자각하고 기술학습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실천에 구현해나갔다.

강냉이여러개씨모아심기방법을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비배관리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여 정보당 소출을 높이였다.

과학농사에 다수확의 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한 **배천군 금성협동농장 제12작업반 1분조 김문근동무는** 앞선 새배방법을 대담하게 담당포전의 전면적에 도입하였다.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면 축산물생산을 늘일수 있어 좋고 집짐승배설물로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다.

이것을 명심한 그는 가정에서 여러 마리의 돼지를 길러 수십t의 거름을 생산하였다.

이렇게 과학농사를 지력으로 담보할수 있게 한 그는 김매기, 비료주기, 농약주기, 물대기를 비롯한 비배관리를 기술적요구에 맞게 하여 많은 알곡을 생산하였다.

농업과학기술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는 여기에 알곡증산의 튼튼한 담보가 있다.

신천군 백석협동농장 제10작업반 2분조 백혜숙동무는 강냉이여러개씨모아심기를 받아들이였다. 또한 자체의 힘으로 생물활성제와 성장촉진제를 마련하여 여러차례의 일덧비료주기를 진행함으로써 고온과 가물이 지속된 올해의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정보당 알곡생산량을 부쩌 늘이였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임에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황남땅의 애국농민들은 말로써가 아니라 다수확의 자랑찬 성과로 증명하였다.

어찌 이들만이랴.

씨앗을 묻기 전에 량심을 먼저 묻을줄 아는 **안악군 덕성협동농장 제1작업반 3분조 김경화동무는** 땅을 기름지게 걸구고 김매기도 남들보다 더 하면서 담당포전을 꽃밭처럼 가꾸었다. 또한 거름생산에 힘을 넣어 질좋은 거름을 정보당 20-30t이상 냄에 대한 당의 요구대로 한줌의 거름이라도 더 내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거름원천이 부족한 조건에서 풀거름, 구들재, 진거름 등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여 지력을 높이였다.

담당포전의 면적이 적지 않은 조건에서 그만큼 품도 곱절로 많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담당포전을 전투초소로 여기고 자기의 애국심을 검증받는 심정으로 곡식을 정성껏 가꾸었다.

그의 성실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거짓을 모르는 땅은 그가 바친 것만큼 알찬 열매를 주었다.

이런 다수확농민들은 황남땅의 벌방과 중산간지대의 그 어느 농장에나 있다.

당의 농업정책을 말로써가 아니라 헌신적인 실천으로 관철할줄 아는 이런 애국농민의 대렬이 늘어날 때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이 마련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전 명 일

벼강화재배방법을 도입

회령시 인계협동농장 직속분조에서

회령시 인계협동농장 직속분조에서는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으며 올해에는 논벼, 강냉이농사에서 다수확을 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농사에서 기어이 통장훈을 부르자면 벼강화재배방법을 비롯한 다수확농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전상력분조장은 새로운 결심을 안고 농장일군들의 지도방조속에 벼강화재배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었다.

여기서 중시한것이 있다. 분조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문제였다.

벼강화재배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기본은 토양조건에 맞게 간단물대기방법을 받아들이는것이였다. 논물관리를 제대로 못하여 포전들에서 물을 제때에 뽑지 못하는 경우 뿌리활성이 낮아지고 헛이지가 많아져 벼모생육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을 바로잡자면 결정적으로 포전들에 물대기와 메기를 잘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야 하였다.

분조장은 농장원들과 지혜를 합쳐 방도를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 물길가시기를 집적으로 진행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논면적이 많은 분조의 실정에서 물길만 잘 가져내도 물대기와 메기를 제때에 할수 있었다.

분조장은 앞장에서 헌신하며 농장원들을 불러일으켜 물길을 기술적요구대로 넓히면서 집적으로 가져내기 위한 전투를 벌렸다. 그후 농장원별로 물길구간을 담당시켰다. 이에 그치지 않고 포전의 수평고루기를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렸다. 수평고루기를 잘해야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는것은 물론 포전의 곳곳에 물을 골고루 대고 뺄수 있기때문이였다.

분조장은 수평을 잘 보장하지 못하여 평당 한포기씩만 비여도 정보당 수십kg의 소출이 떨어진다는것을 농장원들에게 다시금 강조하면서 구석진 곳까지 수평고루기를 잘해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이렇게 포전들에 물대기와 메기를 잘하는데 모를 박고 그 준비사업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내민 결과 벼모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수 있었다.

분조장은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고 분조농사와 관리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갔다.

그는 작업현장에서의 총화모임을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전환시켜 농장원들이 벼강화재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잘 알고 실천에 적극 활용해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영농공정별로 로력 및 작업조직을 짜고들면서 모를 낸 후 토양수분상태에 따라 물관리방법을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앞질러가며 전개하였다.

이런 면밀한 조직사업과 헌신적인 일본새는 농장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는 밑거름이 되였다.

농장원들은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보장, 비료주기와 살초제치기 등 모든 영농작업을 기술적요구대로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분조에서는 정보당 평균 8, 5t이상의 논벼를 거두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뿐만아니라 강냉이여러개씨모아심기를 받아들여 강냉이를 정보당 평균 10t이상 수확하였다.

올해에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한 분조의 농사경험은 본받을만 하다.

본사기자 리 영 하

실정에 맞는 증산방도를 찾아내여

숙천군 칠리농장 청년작업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숙천군 칠리농장 청년작업반에서는 올해에 논벼다수확을 내여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였으며 알곡수매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결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다.

바다가에 위치한것으로 하여 다른 단위보다 조건이 불리하였지만 이들은 영농공정별로 자체의 실정에 맞는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다수확을 낼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갔다.

그 비결을 보기로 하자.

우선 해마다 지력을 높이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집중하였다.

조락논이 대부분인 작업반에는 개량해야 할 논이 많았다. 이런 특성으로 하여 다른 단위보다 거름도 많이 내야 하였다.

작업반원들은 한해 묵인 거름을 정보당 20t이상 포전에 내군 하였다. 특히 닭배설물을 확보하여 정보당 500~800kg씩 정상적으로 내였다.

닭배설물에는 민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비료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이것은 논벼의 뿌리활성을 높여주고 줄기를 굵게 해줄뿐아니라 실한 이삭이 달리게 하는 등 좋은 점이 많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닭의 배설물은 종합비료나 같기 때문에 밭에 내면 농사가 아주 잘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것을 명심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자기 작업반에서도 능히 다수확을 낼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닭배설물확보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

작업반원들은 닭기르기에 힘을 넣으면서 도처에 수소문하여 많은 닭배설물을 구해들이였다.

초급일군들은 총화평가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작업반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마다 지력을 높인 결과 알곡소출이 점차 늘어나게 되였다.

다음으로 작업반에서는 농기계리용문제를 틀어쥐고 완강하게 내밀었다.

한해농사는 영농공정별적기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이로부터 작업반초급일군들은 실정에 맞는 농기계들을 제작 및 개조하여 리용할 대담한 목표를 제기하였다.

이들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을 안고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없는것은 자체로 만들고 부족점을 퇴치하면서 필요한 농기계들을 하나하나 마련해나갔다.

실제로 논수평을 보장하는 농기계와 벼모잎자르는기계를 들수 있다.

작업반초급일군인 김재남동무가 제작한 논수평을 보장하는 농기계는 능률적이였다.

논수평을 보장하는것은 모사름물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지난 시기 논갈이를 할 때에는 수평고루기를 잘하느라고 하였지만 높낮이가 적지 않게 차이나기도 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논에 모내기를 하면 모가 물에 잠기거나 땅우에 드러나 죽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작업반에서는 트락토르로 써레치기를 할 때 이 농기계를 리용하였다. 결과 논판의 수평이 정확히 보장되여 모내기후 벼모가 뿌리를 잘 내릴수 있었다.

작업반에서는 벼모잎을 두번 잘라주는 방법을 도입하여 소출을 높이였다. 이것을 기계화하여야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확신한 작업반원들은 벼모잎자르는기계를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 부족점을 포착한 이들은 그전과는 다른 칼날을 설치하여 속도와 질을 보장하였다. 잎자른 벼모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진 결과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관개체계의 말단에 위치하고 있는 조건에 맞게 물부족현상을 없애기 위해 수천m의 물길을 내고 양수기를 개조하였다.

이들처럼 자기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다수확방도를 찾아쥐고 실천해나갈 때 포전마다 풍년이삭이 주렁지게 된다.

오 은 별

은을 낸 5일생육조사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알곡 정보당 10t이상 생산하여 최고수확년도수준 돌파, 농장의 모든 작업반과 분조가 다수확작업반, 다수확분조로 되여 다수확농장영예 쟁취…

뜻깊은 올해 예년에 없는 알곡생산성과를 이룩한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일군들의 농사경험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농장의 토양조건에 맞는 우량품종을 받아들이고 정보당 40t이상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냈으며 여러가지 효능높은 성장촉진제, 생물활성제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인것도 좋다.

하지만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올해농사의 비결을 놓고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5일생육조사가 큰 은을 냈다.》

다수확을 내는데서 5일생육조사가 중요한 몫을 담당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이 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촌의 모든 영농공정은 사실상 기술공정이며 따라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것을 요구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뼈속깊이 새긴 관리위원장 송윤희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의 생각은 하나로 합쳐졌다.

한해농사의 모든 영농작업수행과정이 그대로 과학농사로 일관되게 하자면 5일생육조사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일군들이 내린 결론이였다.

일군들은 제한된 기술일군들로 진행하면 생육조사를 보다 심화시키기로 하였다. 그것은 관리위원장이 5일에 한번씩 농장일군들, 작업반초급일군들과 함께 포전을 돌아보면서 생육조사결과를 놓고 현장에서 협의회를 진행하는것을 제도화하는것이였다.

이렇게 하면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일반화하는데서도 그렇고 집체적토의밑에 옳은 대책들을 세워나가는데서 좋을것이였다.

이것은 곧 실천으로 이어졌다.

한차례, 두차례… 이 사업이 반복될수록 초급일군들속에서 자기 단위 포전의 생육상태를 놓고 연구를 깊이 하는것과 함께 앞선 영농방법들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되였다.

그것은 실력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생육조사결과를 놓고 진행되는 현장협의회에서 관리위원장이 제기하는 물음에 정확한 대답을 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보다 중요하게는 아무리 욕망이 크다고 해도 당의 농업정책의 요구대로 과학농사를 하지 않고서는 다수확을 낼수 없다는것을 모두가 깊이 자각한데 있었다.

결국 5일생육조사는 그대로 과학농사의 기수가 될 때 다수확의 지름길을 열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강냉이성형모재배방법을 도입하는것이 농장의 실정에 맞는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이것은 강냉이성형모를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을 현대농업과학기술과 앞선 영농방법을 잘 알고 모든 일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해나가는 과학농사의 담당자, 주인공으로 준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농장에서는 이미전부터 과학기술전당, 인민대학습당, 농업연구원과의 련계밑에 새로운 과학기술성과자료 수만건을 구축해놓고 단계별영농공정수행에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근기있게 내밀어왔다.

바로 이런 과학농사열풍이 요긴한 농사작황을 안아온것이다.

뜻깊은 올해의 농사경과를 놓고 더욱 신심에 넘쳐있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농업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잘하는것과 함께 원격교육을 통한 과학기술학습을 다음해농사차비의 중요항목으로 틀어쥐고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박 영 진

실리있는 성형모에 의한 겹재배방법

장강군 읍협동농장에서

박옥희관리위원장은 대담하게 벌방지대에서 재배하는 우량품종의 강냉이종자를 받아들일것을 결심하였다.

그런데 문제로 된것은 이 종자가 수확고는 높았지만 생육기일이 길어 농장의 조건에는 적합치 않은것이였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선다면 언제가도 다수확을 낼수 없었다. 관리위원장은 농사를 책임진 일군이 온실에서 키워 기온이 낮은 지대에서도 우량품종을 받아들일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며 실리적인 방법이였다.

그후 온실에서의 강냉이성형모기르기가 진행되였다. 온실에서 강냉이성형모를 잎이 4~5개가 될 때까지 자래우면 부족되는 생육적산온도를 보충하기 때문에 4월 중순경에 옮겨심어도 안전하게 다수확을 거둘수 있었다.

이것은 곧 실천으로 이어졌다.

한차례, 두차례… 이 사업이 반복될수록 초급일군들속에서 자기 단위 포전의 생육상태를 놓고 연구를 깊이 하는것과 함께 앞선 영농방법들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되였다.

그것은 실력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생육조사결과를 놓고 진행되는 현장협의회에서 관리위원장이 제기하는 물음에 정확한 대답을 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보다 중요하게는 아무리 욕망이 크다고 해도 당의 농업정책의 요구대로 과학농사를 하지 않고서는 다수확을 낼수 없다는것을 모두가 깊이 자각한데 있었다.

결국 5일생육조사는 그대로 과학농사의 기수가 될 때 다수확의 지름길을 열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강냉이성형모재배방법을 도입하는것이 농장의 실정에 맞는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이것은 강냉이성형모를 받아들여 로력과 종자, 비료 등을 절약하면서도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었다.

합리적인 겹재배방법을 받아들일 때의 일을 보자.

일군들은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주체농법과 최신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학습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 겹재배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농장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일군들부터 앞장섰다.

농장에서는 강냉이를 원그루로 하는 조건에서 강냉이는 4줄, 감자는 8줄을 심는 방법으로 겹재배하였다.

결국 무침땅의 리용률을 높이고 강냉이생육에 필요한 빛과 통풍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었다. 또한 감자를 캔 다음 일찍기를 땅에 묻으니 지력이 높아졌고 그루바꿈을 하여 련작피해를 막을수 있어 좋았다.

농장에서는 이처럼 두벌농사를 알심있게 지어 최고소출을 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이 농장의 경험은 일군들이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과학농사의 앞세를 떼고 대중을 불러일으킬 때 북부지대에서도 다수확을 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 성 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0일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최고전당인 조선대학교를 세워주시고 재일동포자녀들을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수리아대사관 연회마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7돐에 즈음하여 주조 수리아아랍공화국대사관이 20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태형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땔맘 쑬레이만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바샤르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전통적인 조선수리아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중국에 갔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대표단 귀국

우리 나라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체육상 김일국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된 국제유술련맹 세계유술장자경기대회에 명예손님으로 참가하고 20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우리 나라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인 체육성 제1부상 김정수동지와 장승강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마중하였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문태승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2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새 제품개발에 계속 큰 힘을

평양화장품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 떨쳐나선 평양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최근 새로운 여러가지 머리칼미용화장품을 만들어 내놓았다. 특히 겔형, 분무형 등 다양한 종류로 생산되고있는 머리칼고착제는 지금 우수한 미용효과로 하여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에 힘을 넣어 세계적수준의 다양한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기호와 특성, 다양한 취미에 맞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화장품들과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여러가지 종류의 화장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새 제품개발사업에 떨쳐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목되는것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있는 여러가지 종류의 머리칼고착제를 만들고 기술쟁신에 계속 힘을 넣고 있는것이다.

이들은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대한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지난 시기 공장과 다른 단위들에서 생산되던 머리칼고착제의 우결함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질좋은 새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두뇌전, 기술전을 벌리였다.

여기서 힘을 넣은것은 분무형에 속하는 공기졸형머리칼고착제의 개발이였다.

이 머리칼고착제는 액체를 미세한 알갱이로 분산시키기때문에 다른 형태의 고착제들에 비해 머리칼에 대한 침투성이 좋고 미용효과를 보다 높여준다고 한다.

그러나 새 제품의 개발은 단단대로가 아니였다. 이 고착제를 만들자면 액체를 분산시킬수 있는 추진제가 있어야 하였는데 수입자재가 없으면 생산할수 없는것으로 되여있었다.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의 창조적협조밑에 공기졸형머리칼고착제의 추진제를 국내원료로 대신하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이어갔다.

일군들은 기술자들이 주저앉을세라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실험에 필요한 조건들을 흔만히 갖추어주기 위해 앞세를 메고 뛰였다. 이 과정에 추진제의 추진력을 평가할수 있는 실험장치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창안도입함으로써 국내원료로 추진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공하였다.

결과 우리의 힘과 기술로 공기졸형머리칼고착제를 보다 질좋게 만들어낼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수입자재를 리용할 때에 비해 원가도 훨씬 낮아졌다.

지금 평양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공기졸형뿐아니라 겔형고착제와 정발제, 머리칼영양액을 비롯한 여러가지 머리칼미용화장품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심 학 철

대오의 기수가 되여

덕성탄광 강호영청년돌격대 3소대장 정철동무는 언제나 대오의 기수가 되여 소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5월 중순 굴진작업도중 뚝밖의 난판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갱의 일부 구간이 붕락되였던것이다. 붕락구간을 복구하자면 며칠은 실히 걸려야 하였다.

정철동무는 신심을 잃지 않고 소대원들을 불러일으켜 복구전투를 벌려나갔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갱복구전투는 불과 10시간만에 결속되였다.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계속혁신하여 소대는 맡겨진 년간 굴진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철동무는 생활에서도 소대원들의 모범으로 되고있다.

언제인가 정대와 정암이 떨어지게 되자 그는 스스로 말아안고 해결해왔으며 한 소대원이 심하게 앓을 때에는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어 그가 초소에 다시 설수 있게 하였다.

동지들과 집단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정철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대는 전투력이 강한 집단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로농통신원 연 전 행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높이 화력탄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철도국 북창철도분국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그리움속에 마련된 소중한 창조의 열매

성천강출하사업소에 우리 식의 초고주파멸균기 도입

성천강출하사업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 나날에 다녀가신 령도업적탄생지이다. 지금 사업소에서는 여러가지 수산물가공품 등과 함께 나노금다당주사약을 비롯한 효능높은 의약품들이 생산되고있다. 이 의약품들은 우리 나라뿐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최근 사업소에서는 과학연구기관과 창조적으로 협조하여 주사약생산에 처음으로 우리 식의 초고주파멸균기를 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제약공업부문에서 큰 전진을 안아오게 될 이 혁신적인 성과는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할것없이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과학화수준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평양의 어느 한 연구기관으로는 성천강출하사업소의 녀성책임일군이 찾아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업소를 다녀가신 잊을수 없는 그날을 며칠 앞두고 김선신지배인이 이 연구기관을 찾아온데는 사연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소에 현대적으로 꾸려놓은 주사약생산공정에 성능높은 고압멸균기를 새로 맞아들이기 위해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사업소의 발전을 그이의 유훈대로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주도해나가고있는 녀성일군의 진취적이며 불같은 열정이 비낀 제안을 이곳 일군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자기들의 지식과 노력도 적으나마 합치고 싶었던것이다.

곧 실력있는 과학자, 기술자들로 고압멸균기제작을 위한 연구집단이 무어졌다.

얼마후 현지료해를 위하여 평양으로부터 수백리 떨어진 성천강출하사업소에 도착한 과학자, 기술자들은 녀성지배인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로정부터 하나하나 밟아보았다.

12월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찾아오시여 불편한 기색을 애써 감추시며 사업소의 어려곳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불멸의 자욱을 따라 걸을수록 이들에게는 새로운 결심이 굳어지기 시작하였다. 이곳으로 떠나오기 전에 이미 사업소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설계제작하기로 하였던 보통의 고압멸균기가 아니라 첨단수준의 멸균기를 우리 식으로 새롭게 연구개발하자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어 초기의 고압멸균기제작과제는 주사약생산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될 우리 식의 초고주파멸균기의 연구개발이라는 높은 목표로 바뀌우게 되었다.

사실 이것은 단번성공을 기약하기 힘든 길이였다.

당시까지 세계적으로 식료품과 의약품 등의 생산에 리용되고있는 멸균방법에는 고압멸균, 자외선멸균, 초고주파멸균방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었다. 그가운데서도 초고주파의 열적 및 생물학적작용을 리용하는 초고주파멸균법은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가 보장된 증기로 균을 죽이는 고압멸균법과 비해볼 때 식료품이나 의약품의 내부까지 짧은 시간에 멸균할수 있고 영양성분의 파괴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멸균방법으로 주목되고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초고주파멸균법을 주사약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은 좀처럼 자리가 나지 않았다. 문헌조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이들은 초고주파멸균기를 주사약생산에 리용하고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얼마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러설수 없었다. 이들이 고압멸균기제작이라는 헐한 길이 아니라 절단코 초행길인 초고주파멸균기를 연구개발하기 위한 탐구의 길을 선택하게 된데는 깊은 사연이 있었다.

벌써 수십년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시의 세계적추세에 맞게 우리 나라에서도 초고주파살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데 대한 귀중한 종자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안겨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실현해나가는 나날에 과학자, 기술자들은 여러가지 방식의 초고주파멸균장치를 연구제작하여 식료품생산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주사약생산에 도입해본 적은 한번도 없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초고주파멸균기를 연구개발하기 위한 개척의 길이 결코 단순한 실무적인 과학탐구의 길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길이라는 불타는 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억척스럽게 걸어갔다.

긴장한 탐구전, 창조전의 나날속에 초고주파멸균법을 주사약생산에 도입하는데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여나갔다.

이에 토대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은 련속식초고주파멸균기에 대한 총설계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으며 기발한 착상과 실천으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는 초고주파차폐를 위한 장치제작을 성공시켰다. 련속식으로 된 장치를 조종하기 위한 회로설계와 프로그람개발에도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졌다.

그리하여 초고주파멸균기는 단 몇달만에 훌륭히 연구제작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과학자, 기술자들은 성천강출하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그리고 그들과 창조적으로 협조하면서 주사약생산에 이 초고주파멸균기를 성과적으로 도입하였다.

우리 식의 련속식초고주파주사약멸균기는 도입되자마자 커다란 경제적효과성을 나타내였다. 종전의 멸균방법에 비하여 전력소비가 대폭 줄어들고 멸균시간이 수십초정도밖에 되지 않는것으로 하여 현장에서 좋아하였다. 멸균과정에 주사약의 유효성분이 소실되지 않기때문에 그 효능이 훨씬 높아졌으며 이로부터 얻어지는 경제적실리 또한 컸다. 종전의 멸균방법을 리용할 때 나타나던 주사약의 색도변화나 흐림, 앙금형성과 같은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보관기일도 몇배나 늘어났다.

이것은 그야말로 주사약생산에서 하나의 혁신이였다.

성공의 그날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 종업원들은 이렇듯 귀중한 연구종자를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금치 못하였다.

첨단과학기술의 력을 단단히 보게 된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보내였다. 하지만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삶과 투쟁의 생명선으로 삼고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나갈 하나의 지향밑에 생눈길과도 같은 개발창조의 길을 걷는 자기들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연구조건을 성심성의껏 보장해주었을뿐아니라 첫 도입자가 되여준 성천강출하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진정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였다.

주사약생산에 처음으로 도입된 우리 식의 초고주파멸균기는 이렇게 연구제작되였다. 많은 일군들과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는 련속식초고주파주사약멸균기는 지난 10월말 첨단기술제품으로 등록되였다.

본사기자 려명희

아이들의 행복넘친 웃음을 지켜

옥류아동병원 의료일군들

당의 뜨거운 온정속에 훌륭히 일떠선 옥류아동병원이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여기에 대답을 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일군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는것만큼 누구보다도 당에 충실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책임성과 기술실무적자질이 높아야 합니다.》

지난 10월 19일 병원의 어느 한 수술장에서는 돌도 되지 않은 어린 환자에 대한 수술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병원이라면 례사롭게 여겨지는 이 사실에 우리가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된데는 사연이 있다.

한겨울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올해 1월 어느날 저녁 한 녀인이 해여난지 20여일밖에 안되는 갓난애기를 품에 안고 옥류아동병원으로 달려왔다.

《어제 아침부터 먹지도 않고 계속 울기만 합니다. 배는 부어오르고… 무슨 큰 병은 아니겠지요?》

애기어머니의 안타까운 호소였다.

그 시각 애기의 생명은 분과 초를 다투고있었다. 때를 같이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병원일군들과 복부외과 의료일군들의 수술준비를 위한 긴급협의회가 진행되였다.

천하던 바깥은 어느덧 어름으로 뒤덮였지만 협의회장의 긴장한 분위기는 촘촘히 수그러들줄 몰랐다. 수술의 위험성이 너무도 컸던것이다. 이때 기술부원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수술은 꼭 해야 합니다. 집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자리에 모인 사람치고 그의 심중을 모를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이 구석구석에까지 뜨겁게 깃들어있는 병원에서는 오직 완치라는 결과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의료일군들모두의 확고한 신조이기때문이였다. 환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서평양무궤도전차사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은 의료일군들의 결심을 더욱 굳혀주었다.

환자의 상태는 예상했던것보다 심각했다. 손가락굵기만 한 대장에 한두개도 아니고 여러개의 구멍이 나있었던것이다. 손으로 잡기에도 힘든 작은 바늘로 한뜸한뜸 꿰매야 하는 수술은 보통의 의지를 요구하지 않았다. 몇뜸만 뜨고나면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순간의 실수로 바늘구멍 하나만 잘못 나도 그 후과는 예상할수 없었다.

오랜 시간에 걸치는 수술은 성과적으로 끝났지만 어린 생명을 위한 소생전투는 시작에 불과하였다.

갓난애기들에 대한 치료에서 수술후 집중치료는 특히 중요했다. 담당의사인 김원국동무는 변화되는 환자의 생명지표들을 놓고 밤새도록 연구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그에 따르는 치료계획을 내놓군 하였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김문호과장의 마음은 후더워올랐다. 환자에 대한 의료일군의 정성은 결코 나이나 년한에 의해 측정되는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였다.

한명의 환자를 위해 함께 마음쓰고 지혜를 합쳐가는 과의료집단의 불같은 사랑속에 엄마후 애기는 엄마의 품에 안겨 병원문을 나서게 되였다.

그후에도 의료일군들의 따뜻한 손길은 환자의 곁에서 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애기의 상태를 수시로 알아보며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준 이들의 뜨거운 정성에 이끌려 지난 10월에 2차수술을 성과적으로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였던것이다.

어린 생명을 소생에로 이끌어준 정성, 바로 그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병을 모르고 마음껏 자라나도록 하려는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아글타글 노력해가는 이곳 의료일군들의 충정의 분출이였다.

과에서는 이렇게 올해에만도 태여난지 불과 몇시간밖에 안되는 새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십명의 갓난애기에 대한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 넘쳐흐르고 이런 참된 보건일군들의 뜨거운 심장이 행복의 웃음소리를 낳는 아이들의 사랑의 집, 그래서 우리 인민은 옥류아동병원을 더없이 소중히 간직하는것이리라.

본사기자 조향미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열의높이 진공차단기제작에 서로의 지혜를 합쳐간다. —평양자동화기구공장에서— 본사기자 최충성 찍음

탐구심과 관찰력을 계발시켜

홍원군 영웅홍원고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중등일반교육을 개선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홍원군 영웅홍원고급중학교는 학과실력이 높은것으로 잘 알려진 학교이다. 올해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고급중학교학생들의 알아맞추기경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군적으로 조직하는 학과경연들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성과의 비결은 학생들의 탐구심과 관찰력을 적극 계발시켜나간데 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것에 대한 탐구심과 자연에 대한 관찰력이 제일 강하고 왕성한 때는 초급, 고급중학교시기이다. 학교의 교원들은 학생들의 이러한 심리적특성에 맞게 학과목의 내용들을 주입식이 아니라 깨우쳐주고 계발시키는 방법으로 배워주고있다.

학교에서는 우선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구현하는데서 학생들의 관찰력을 계발시키며 그들이 배운 내용을 실천에 활용해나가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칠판에 옮겨놓고 설명해주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바다와 산, 벌을 낀 자기 고장의 지리적특성과 결부하여 그 내용을 더 쉽게 리해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는 현실에 나가 학생들에게 교재내용을 설명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들이 이룩한 성과들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조국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고있다.

그의 이런 노력으로 하여 학생들의 실력은 나날이 높아지게 되였다. 하여 지금 이 학교 학생들은 누구나 자기 고장의 지형도를 작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모형사판까지 척척 만들어내는 수준에 이르게 되였다.

분과장인 박명준동무 역시 나어린 학생들에게 물리과목에 대한 취미를 붙여주고 탐구심을 높여주기 위해 애쓴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전류에 대한 설명을 동심에 맞게 생활적으로 하였다. 그는 전류가 흐르는 전기줄에 새들이 내려앉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때문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여 학생들이 학습내용에 호기심을 가지게 한 다음 전류와 관련한 물리법칙을 차근차근 가르치였다.

이렇게 교과서내용을 생활적인 내용과 밀접히 결부하여 가르쳐주니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여 배운 내용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일수 있게 되였다.

뿌리가 튼튼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릴수 있는것처럼 학생들에게 기초교육을 주는 중등일반교육을 잘하여야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는것이다.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감을 깊이 새긴 이 학교의 교원들은 학생들의 창조적인 사고능력을 계발시켜 그들이 교수내용을 스스로 정확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교원들 거의 모두가 10월8일 모범교수자의 영예를 지닐수 있게 되였다.

오늘도 이곳 교원들은 학생들 모두를 영웅이라는 부름을 지닌 학교의 영예를 빛내여갈 앞날의 역군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차수

감자음식으로 소문난 봉사기지

평양압록각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동대원구역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압록각은 감자음식을 전문으로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는 평강도의 특산물식당이다. 여기서 만든 감자음식은 그 맛이 독특하여 소문이 자자하다.

누구나 감자음식을 특색있게 만드는 비방에 대하여 알고 싶어한다.

우리 역시 이런 호기심을 안고 얼마전 이곳을 찾았다.

때는 한낮이여서 2층으로 된 식당은 감자음식을 맛보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 흥성이고있었다.

질기고 가는 국수발을 감칠맛이 나는 국물에 말아 고명을 한 농마국수며 김이 문문 나고 윤기가 도는 언감자떡,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감자파배기와 감자지짐…

감자음식들을 마주하고 좋아하는 손님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귀전에 한 녀인의 상냥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지배인이 직접 만든다는 언감자떡맛을 어디 잊을수가 있어야지. 그때 이번엔 로친도 함께 왔네.》

알고보니 지배인 리송옥동무는 금양부문에서 30여년을 일해오고있었다. 인민들이 즐겨찾는 감자음식을 만들기 위해 그는 늘 주방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직접 랑소매를 걷어올리고 음식을 만든다고 한다.

지배인이 반겨맞은 그 로인은 중구역에서 살고있는데 사흘이 멀다하게 찾아와 감자음식을 즐겨드는 이 식당의 단골손님이였다.

감자음식을 특색있게 잘 만들수 있는 비방에 대해 묻는 우리에게 리송옥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흔히 사람들은 음식이 료리사의 손맛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료리사의 마음과 정성을 떠나 어찌 훌륭한 음식을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평양시에 각 도특산물식당을 내오도록 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에 대하여, 물소 원자재보장을 비롯한 식당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평강도특산물식당으로 불리우던 이곳의 이름도 압록각으로 고쳐부르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대하여.

리송옥동무의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현실로 꽃피우려는 이곳 종업원들의 불같은 마음, 그것이 감자음식의 진맛을 내는 첫째가는 비방이 아니랴.

감자음식을 인민들이 즐겨찾는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이 바쳐온 피타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수록 가슴뜨거웠다.

그들이 료리에 대한 상식을 넓히고 기술을 높이기 위해 탐독한 책들을 쌓으면 키가 넘는다고 한다. 새로 들어온 료리사들의 기술을 높여주기 위해 민족음식을 소개한 많은 책들과 특화편집물까지 가져다가 보여주며 하나하나 배워주고있다는 주방장 주정숙동무에 대한 이야기도 감동적이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민족음식을 맛있게 드는 손님들의 모습에서 봉사자의 긍지를 한껏 느끼고있다.

이렇듯 하나의 음식에도 진정을 기울이는 봉사자들이 있어 우리의 음식문화가 나날이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음을 우리는 평양압록각에 대한 취재길에서 다시금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그리고 믿었다.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에 그들이 바쳐가는 헌신과 더불어 이곳의 자랑도 나날이 커만 가리라는것을.

본사기자 신철

기술문제가 아니라 관점과 신심문제였다

◇ 형봉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

최근에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형봉탄광에서는 수리하기 어렵다고 하던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살려내여 석탄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이 성과는 오늘날 자기 단위의 걸린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우리 일군들이 어떤 사업기풍을 발휘해나가야 하는가 하는데 대한 좋은 대답으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사업전반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해나가야 생산을 활성화하고 기술개건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몇달전 어느날이였다.

탄광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사무실에 들어선 김상용지배인의 마음은 무거웠다.

쟁들에서 가동하지 못하고있는 설비들을 볼수록 량심이 가책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던것이다. 그 설비들이 들어왔을 때 탄부들이 얼마나 좋아하였던가. 모두가 성수가 나서 더 많은 석탄을 캐내겠다고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그런데 한동안 석탄생산에 크게 이바지하던 설비들이 하나둘 고장나게 되여 생산에 지장을 받았지만 탄부들은 그것을 어쩔수 없는 일로 여기고있었다. 누구나 걱정은 하면서도 탄광자체의 힘으로는 살려낼수 없다고 도리머리를 저었던것이다.

그날도 지배인은 여러 쟁에서 《저 압축기만 돌아가도 더 본때를 보이겠는데…》라는 탄부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었던것이다.

(정말 우리 손으로 고쳐낼수 없을가. 지금과 같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나가야 할 때에 설비들이 고장나서 석탄생산에 지장을 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강건너 불보듯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일군의 태도란 말인가.)

생각끝에 지배인은 현장에 나가 탄부들과 진지하게 의논해보는 과정에 고장난 설비들을 수리하지 못하고있는것이 결코 기술문제때문만이 아니라는것을 또박하게 되였다. 탄부들속에 석탄전선이 매우 중요한데로부터 설비들이 모자라면 우에서 또 보내줄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미련과 설비수리를 어디서 고급한 기술자가 와서 해줄것을 바라는 의존심이 자리잡고있었던것이다. 그러다보니 설비의 고장원인도 정확히 모르고있었다.

결국 기술문제가 아니라 관점문제였고 신심문제였다.

그리하여 탄광에서는 고장난 설비들을 살려내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면서 당조직의 지도밑에 기술자들과 탄부대중의 심장속에 이 사업이 단순히 기술적문제나 생산문제가 아니라 조국의 재부를 대하는 관점문제, 당과 조국을 받드는 탄부의 애국심과 량심에 관한 문제라는것을 깊이 새겨주는 사업부터 진행하였다.

탄부들의 관점을 올바로 세워주는것과 함께 탄광의 책임일군들은 걸린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로만 호소하던 지난 시기의 낡은 사업방법과 결별하고 실지로 자체의 힘으로 설비수리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꼼꼼히 세우는데 품을 들이였다. 지배인부터가 며칠동안 쟁들에 나가 설비들의 고장원인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이 과정에 명백한 대책안이 서게 되였다.

그에 따라 탄광에서는 실력있는 성원들로 고장난 설비들을 수리하기 위한 연구조를 구성하였다. 설비들을 살려내기 위한 사업에 동원된 성원들은 자기들의 어깨우에 얼마나 무거운 임무가 지워져있는가를 자각하고 서로의 지혜를 합치며 비상한 탐구심과 창발성을 발휘해나갔다.

탄광일군들은 이들이 힘을 합쳐 고장난 착암기들을 먼저 살려도록 하였다. 비록 큰 설비는 아니였지만 한가지 설비라도 먼저 살려내는데 성공하면 탄부들에게는 열정을 말하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얼마후에는 시간과 로력,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자체로 부속품을 해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탐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슬쩍였던 어려대의 착암기가 단번에 살아나게 되였으며 막장에서 또다시 동음을 울리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던바대로 이것이 탄부들에게 주는 영향은 아주 좋았다. 수리할수 없는것으로 여기면서 손을 대지 못했던 착암기들이 다시 가동하는것을 목격한 탄부들은 과학기술의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폐부로 느끼게 되였다. 이와 함께 자체의 힘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얼마든지 뚫고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으며 교장난 설비들을 살려내기 위한 전투에 더도나도 지혜를 합치게 되였다. 여기서 큰 힘을 얻은 연구조성원들은 어떤 설비도 얼마든지 자체로 살려낼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펌이어 압축기수리에 달라붙게 되였다.

물론 그 결과는 성공적이였다. 압축기의 고장원인이 불결한 조종장치에 있다는것을 밝혀낸 이들은 조종장치의 회로를 부분적으로 개조하여 먼저 압축기를 가동시켰다. 이들은 여기서 만족한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우리 식으로 조종장치를 새로 구성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마침내 우리 식의 새로운 조종회로를 내놓고야말았다.

이것은 값비싼 설비들의 조종명맥을 틀어쥐고 앞으로도 설비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데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어놓은것으로 되였다.

탄광일군들이 여기서 찾은 교훈은 정말 컸다. 새 설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거나 누가 와서 설비를 고쳐주기만을 계속 바라고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였겠는가.

자기 힘을 믿고 자체의 기술력량을 발동하여 걸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탄부들에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발동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게 되였으니 그 의의는 자못 컸다.

본사기자 지혁철

동지날과 민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민속적으로 전해오는 좋은 관습들에는 민족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적풍모와 정서가 반영되여있습니다.》

래일은 동지날이다.

동지는 24절기가운데서 22번째 절기이다.

동지란 겨울철에 이르렀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 인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년중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은 동지날을 아예 또는 작은 설이라고 하면서 명절로 즐기였다.

우리 선조들이 동지를 한해의 시작으로 본것은 동지 다음날부터 점차 해가 길어지기때문이다.

동지달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해 5월에 비가 적절히 내려 곡식이 잘 자라며 동지달에 눈이 적게 내리면서 찬바람이 자주 불면 다음해 5월의 일기조건이 불리할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동지달을 이처럼 다음해 5월과 관련시켜보았으므로 오동지라고도 불렀다.

동지날에 팥죽을 쑤어먹는것은 우리 인민의 민속적인 풍습의 하나이다. 이 풍습은 식생활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해온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지혜로부터 생겨난것이라고 볼수 있다. 동지를 설로 여긴데로부터 동지팥죽을 한그릇 먹으면 나이 한살 먹었다고 하였다.

팥죽은 팥을 푹 삶고 거기에 흰쌀을 넣은 다음 불을 많이 붓고 끓이였다. 여기에 반드시 수수 또는 찹쌀가루 등으로 모양은 해와 같고 크기는 새알만 하게 빚은 반죽물을 넣군 하였는데 북쪽지방에서는 주로 찰수수가루를 리용하고 개성이남지방에서는 찹쌀가루 등을 리용하는것이 일반적이였다.

이것을 새알심 또는 오그랑이라고 하였다. 새알심을 빚을 때는 몇개를 류달리 크게 빚어 그것이 차례지는 아이에게 복이 찾아든다고 하였다.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이 오그랑이를 자기의 나이만큼 먹으면 좋다고 하였다.

팥죽은 풍년농사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동지팥죽을 먹으면서 한해를 돌이켜보았다. 또한 이듬해의 풍작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웃끼리 서로 동지팥죽을 나누어먹으면서 화목을 도모하였다.

동지날 팥죽을 쑤어먹는 풍습은 오늘도 그대로 전해지면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민족적향취를 더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독자의 편지

저는 몇달전에 자강도전쟁로병보양소를 다녀온 전쟁로병입니다.

지금도 손색없이 꾸려진 호실들과 살뜰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던 보양소종업원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앓는데는 없는가, 애로되는 것은 없는가를 수시로 알아보며 우리가 보양생활을 잘하도록 관심해주는 그들은 꼭 친자식같았습니다. 끼마다 마주하는 풍성한 식탁과 포근하게 몸을 감싸안는 침구류를 볼 때면 우리 로병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에 눈굽이 젖어들군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사랑속에 화선휴양의 나날을 보내던 수십년전의 일이 어제런듯 가슴뜨겁게 돌이켜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화선휴양소에서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가다듬고 싸우는 고지로 달려가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장자강기슭의 숲속에 들어앉은 전쟁로병보양소에서 휴식의 나날을 보내고보니 가슴속에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결심이 차고넘칩니다.

우리 로병들은 숨지는 순간까지 전화의 그 정신으로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가겠습니다.

고풍군 월명리 박문익

총련애국위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며 힘차게 전진해온 투쟁의 한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몸은 비록 이국땅에 있어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아야 하며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어머니조국의 대지우에 애국충정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나가야 합니다.》

해외교포운동의 믿음직한 선구자, 애국위업의 견결한 수호자들인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어머니조국과 더불어 빛나는 자기의 년대기에 또 한페지 자랑찬 기록을 새기였다.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이해는 총련에 있어서도 참으로 격동적인 해였다. 뜻깊은 이해에 총련은 견결한 민족교육권리고수투쟁으로 4.24교육투쟁 70돐을 기념하고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기세로 애국의 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나온 날과 달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고 달려갈 앞길을 신심드높이 내다보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애국의 열정으로 세차게 불타오르고있다.

새로운 리정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해를 맞으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보내주신 축전에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뜻깊은 올해에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본태를 다시금 세계만방에 힘있게 과시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행로우에 반드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리라고 굳게 믿는다는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깊이 새긴 총련은 력사적인 전체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우선 기층조직들을 더욱 정연히 꾸리고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총련일군들은 재일조선인운동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여는 기본고리는 지부사업의 강화이며 그 총적과업은 지부를 애국애족의 믿음직한 성돌로 튼튼히 다지는것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 과정에 새로운 성과와 경험들이 쌓아졌다.

동포들의 애국열의가 비상히 높아진 가운데 지난 5월에 열린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는 재일조선인운동이 새 세기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욱 힘있게 도약하게 하는 분수령으로 되였다.

대회에서는 새로운 토대구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고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기기 위한 애국애족의 진군을 가속화해나가는것을 총적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총련을 공화국의 존엄높은 주체적해외료포조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짐데 대한 문제, 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는 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문제, 민족번영과 통일의 새시대에 맞게 재일동포사회에서 민족성을 지키고 이어가는데 총력을 다할데 대한 문제, 재일조선인운동의 창창한 앞날을 떠밀어나갈 계승자들과 새 세대 인재육성에 각별한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조국에서의 경제건설대진군에 보조를 맞추어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다할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 결정되였다.

대회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업적을 대를 이어 계승하며 모든 활동을 새 세기의 요구와 동포들의 지향에 맞게 혁신하기 위한 투쟁에서 돌파구를 열어놓은 참으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대회이후 총련의 사업에서는 혁신이 일어났다.

비상히 앙양된 정치적분위기속에서 총련 제24차 전체대회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지방본부대회들과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제30차대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제24차대회,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제20차대회,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제21차대회,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제23차대회,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제33차 정기총회 등이 련이어 진행되였다.

애국운동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던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총련의 힘의 원천이였고 억년 드높지 않을 재일동포들의 마음의 기둥이였다.

경사스러운 9월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사랑의 축하문을 보내주시였다.

축하문을 받아안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의 백년대계를 억척같이 탐보해나갈 의지로 가슴끓이였다.

열렬한 조국찬가

70년전 9월 9일은 피눈물의 세월 이역땅에 강제로 끌려가 모진 학대와 멸시속에 망국노의 설음을 삼켜야 했던 재일동포들이 존엄높은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 극적인 운명전환을 하게 된 력사적인 날이다.

공화국창건 70돐을 가장 의의있고 뜻깊게 경축하자는 총련의 호소는 동포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찬동을 받았다.

공화국의 기치따라 애국애족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재일동포들이 어찌 이 민족적경사의 날을 성대히 경축하지 않을수 있으랴.

뜻깊은 이해에 총련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자랑찬 새시대를 펼쳐나가고있는 조국인민들과 숨결과 보폭을 같이하며 존엄높은 해외교포조직의 위용을 만방에 더 높이 떨쳐나가자.

이런 애국의 의지가 전총련조직에 차넘쳤다.

총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사상과 걸출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에 대한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총련의 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칭송하고 공화국의 기치따라 조국과 운명을 같이해온 총련의 투쟁로정, 동포사회의 력사를 반영한 작품들을 수많이 창작발표하였다. 그들의 열정적인 활동은 동포사회에 애국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한편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에서는 선출위인의 위대성을 담은 도서 《21세기의 태양 김정은원수님》을 새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그이의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서술한 도서는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각지에서는 공화국창건 70돐을 민족의 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지방본부별절기모임과 경축행사들이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도꾜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예술공연은 경축열기의 최절정을 이루었다. 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자라난 공화국 인민배우, 공훈배우들과 2.16예술상 개인경연 입상자들, 금강산가극단, 도꾜조선가무단의 예술인들, 각계각층 동포들과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부강조국건설업적을 열렬히 칭송하고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자기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깊은 추억을 불러오는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를 감격의 눈물속에 부르고부르며 동포들은 우리 공화국의 빛나는 력사, 어머니조국과 생사운명을 함께하여온 재일조선인운동의 자랑찬 년대기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어머니조국이여 길이 번영하라! 그대의 번영속에 우리의 행복, 애국위업의 미래가 있다.》

경축무대에서는 이런 격정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왔다.

정녕 이역땅 곳곳에서 울려퍼진 경축의 환호성은 하늘땅이 뒤집히고 시련의 파도가 천만번 덮쳐들어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는 한 자기들의 운명과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 재일동포들의 굳은 신념의 메아리, 한없이 열렬한 조국찬가였다.

제2의 4.24정신으로

올해 재일동포들은 깊은 감회속에 력사적인 4.24교육투쟁 70돐을 기념하였다.

반동들의 야만적인 폭압책동을 짓부시고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피로써 지켜낸 4.24교육투쟁, 그 격렬성과 완강성으로 하여 원쑤들을 전률케 하고 이역땅에서 조선민족의 불굴의 기개를 힘있게 과시한 투쟁의 나날을 돌이켜보며 재일동포들은 그날의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을 굳건히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일본 각지에서 진행된 기념행사들에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가 깃들어있는 단결의 거점, 애국애족의 화원인 학교를 대를 이어 지키고 빛내이는데 마음과 힘을 합쳐나갈 동포들의 의지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왔다.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금요행동을 비롯하여 민족교육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들도 끊임없이 벌어졌다.

투쟁참가자들은 일본정부가 총련의 민족교육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있는것은 죄악의 력사를 되풀이하는것이라고 단죄하면서 끝까지 싸워 승리를 쟁취할것을 다짐하였다.

온 동포사회에 민족교육지킴열의가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되였다. 각계층 동포들은 민족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련과 동포사회의 미래를 지키고 애국애족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며 자기들의 애국적열성을 다 바치였다.

각급 총련조직들은 정규교육체계의 굳건한 토대에 기초하여 광범한 계층의 동포자녀들을 다 망라시킬수 있는 준정규교육제를 발전완성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녀성동맹, 청상회, 교육회 등을 중심으로 《우리 학교 사랑하는 운동》, 《모교를 사랑하는 운동》 등 민족교육지킴을 위한 전통적인 대중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벌어졌으며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차별정책으로부터 민족교육권리를 옹호하고 민족교육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보여주기 위한 대외선전활동도 보다 심도있게 진행되였다.

단결의 힘으로 광풍을 맞받아

올해에도 총련조직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책동은 참으로 악랄하였다.

일본반동들은 각종 사건들을 날조하면서 총련의 각급 기관들과 동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에 미쳐날뛰였다. 우익깡패들은 나중에는 총련중앙회관에 총질까지 하면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광풍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신념을 흔들수 없었다.

일본반동들은 끊임없는 박해와 탄압소동으로 총련조직과 동포사회를 와해분렬시키려고 꾀하였지만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영예를 안고 꿋꿋이 살며 싸워나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화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집회와 시위투쟁현장들은 일본반동들의 횡포무도한 탄압책동과 전대미문의 인권유린행위에 맞서싸워 자기들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려는 동포들의 견결한 의지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동포들은 일본반동들의 끈질긴 총련탄압소동을 우리 공화국과의 대결에서 수치스러운 패자로 되고 국제적으로 외토리신세가 된자들의 비렬하고 부질없는 몸부림으로 여기며 필승의 신심드높이 애국의 한길을 굴함없이 이어갔다.

자기들을 굳건히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사회주의조국이 있는 한 결코 외롭지 않으며 총련애국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안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단결의 힘으로 사나운 광풍을 과감히 뚫고나갔다.

올해 오사까와 히로시마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큰물로 적지 않은 우리 동포들이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 각지 동포들은 이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재난에 휩쓴 사람들은 위험을 뚫고 찾아온 총련구원대앞에서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참으로 올해의 날과 달들은 시련과 난관이 아무리 커도 언제나 위대한 수령, 위대한 조국을 굳게 믿고 운명을 함께 하는 길에 밝은 미래가 있다는 력사의 진리가 재일동포들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진 나날이였다.

본사기자 허영민

남조선신문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가 17일 《친미분단수구악폐세력의 과멸을 결정적으로 재촉할 도로박근혜당》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선거에서 당선된 라경원은 부정적인 력사학재탄 사장의 딸로서 지난 시기 매국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를 지지한것과 같은 로골적인 친일행위로 하여 민심의 비난을 받은자라고 폭로하였다.

이런 라경원이 친박계의 지지를 받아 원내대표로 선출되였다고 하면서 이번 선거결과는 《자유한국당》이 《도로박근혜당》으로 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사설은 이미 민심의 철저한 심판을 받은 세력이 재등장한것만큼 구제불능의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신》독재자의 비밀자금정보를 공개할것을 요구

남조선의 《서울신문》에 의하면 《국민제산되찾기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제산찾기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신》독재자의 스위스은행 비밀자금정보를 공개할것을 요구하였다.

《유신》독재자가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에 부정자금을 예금하였다는것이 미국회 하원 외교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박정희가 지지자들과 야당지도자를 매수하는데 쓰기 위해 최소 3명이상의 명의로 스위스은행에 비밀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였다고 밝혀져있다.

박정희가 미국 《갈프》석유회사에서 뇌물을 받아 스위스은행에 예금하였다는것을 인정한데 대해서와 비밀계좌번호도 침부되여있었다.

단체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폭로하면서 박정희독재《정권》당시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가 스위스은행에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한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계좌에 들어있던 돈의 규모를 명확히 밝혀 환수하여야 한다고 단체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력사의 갈피에서

지구온난화를 처음으로 예측한 과학자 아레니우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는 행성의 모든 생명체들을 위협하고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촉진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 엄중한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해 한세기전에 벌써 예측한 과학자가 있다. 그가 바로 스웨데에의 물리학자이며 화학자인 아레니우스이다.

17살때에 수학과 물리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스웨데에 웁쌀라대학에 입학한 그는 대학기간에도 수학에서 뛰여난 재능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아레니우스가 물리학자, 화학자로 인정받을수 있은것은 전해질해리리론을 내놓았기때문이였다.

전해질해리리론은 초기에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어느 한 나라 잡지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였다.

《아레니우스가 처음으로 내놓은 전해질해리리론은 화학분야의 일부 권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가운데는 그의 모교인 스웨데에 웁쌀라대학의 화학자 클라이브교수도 있었다. 그는 물미음과 흙미음원소를 발견한것으로 하여 이름난 사람이였다. 1883년 아레니우스는 선배들의 연구결과에 토대하여 용액의 전도성에 대한 리론분석을 진행한 후 클라이브교수의 지지와 도움을 받으려고 그를 찾아갔다. 그런데 클라이브교수는 〈허무한 리론〉이라고 힐난하면서 실없는것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그는 이에 락심하지 않고 박사론문변론준비를 한 다음 1884년 5월에 웁쌀라대학에서 론문에 대한 변론을 하였다.

그가 론문을 다 읽자 그 자리에 있던 교수들은 노하여 《황당무계한 리론》이라고 떠들어댔다. 어떤 교수는 《완전한 몽상》에 지나지 않는 그 리론을 절대로 인정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아레니우스의 리론은 국제화학계에서도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영국, 도이췰란드, 프랑스,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 화학자들이 《피상한 리론》, 《가치없는 학설》이라고 비난하였다. 영국의 이름난 화학자 데이비와 물리학자 파라데이가 내놓은 리론과 배치된다는것이였다.

여러해가 흘러서야 그의 전해질해리리론은 화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그의 리론을 필사적으로 부정하던 클라이브교수도 나중에는 과학적인것으로 받아들이였다고 한다.

아레니우스는 20세기 초엽에 인위적인 온실가스방출로 인한 후과에 대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그는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로 말미암아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온난화가 초래될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아레니우스는 1927년에 노벨연구소 소장직에서 온퇴한 후 몇달 안있어 사망하였다.

그가 지구온난화설을 내놓은 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러 과학계에서 그 문제가 론의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1980년대 북극얼음산의 영향으로 지구는 계속 한랭화될것이라는 전해와 인간에 의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지구가 온난화될것이라는 두가지 전해를 놓고 세계과학계가 날카롭게 대립되여있었다.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현실로 느끼고있는 인류는 오늘 아레니우스에 대해 다시금 돌이켜보고있다.

전문가들은 아레니우스가 과학계에서 이름을 날릴수 있은것은 난관에 부닥칠수록 주저앉는것이 아니라 강하게 도전해나서는 기질, 끝장을 볼 때까지 집지하게 파고드는 피라는 정열을 소유하고있었기때문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박진향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는 환경파괴현상

그리스에서 환경파괴현상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13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1.1%가 환경파괴현상이 심대저인 위협으로 대두하고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응답자비률은 80%에 달하였다 한다.

어린이빈궁문제

에스빠냐에서 지난해 어린이빈궁률이 28.3%에 달하였다.

13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북남공동선언리행과 조선반도평화를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민중민주당을 비롯한 단체들이 15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북남공동선언리행과 조선반도평화를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이 땅에서 주인행세를 하며 우리 민족내부의 일에 그 무슨 승인을 운운하는 미국을 단죄하였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오히려 《북인권문제》를 구실로 추가제재와 압박을 떠들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한 나라의 인권문제를 저들의 정치적목적달성에 써먹는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하면서 그로 하여 조선반도정세가 다시 격화된다면 그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제국으로 군림하며 모든것을 힘으로 해결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하면서 그들은 아무리 발악해도 민족공동의 힘으로 솟발시킨 통일렬차를 절대로 멈춰세울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야말로 평화와 번영, 통일의 리정표라고 하면서 통일을 위해 모두가 단결하자고 호소하였다.

참가자들은 《대북적대정책철회! 대북제재해제! 판문점선언리행방해, 내정간섭 중단!》, 《미국놈들 물아내고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대단결하자!》,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모두가 단결하자!》는 구호를 웨치며 반미투쟁을 더 힘차게 벌려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전 《정권》시기의 반인권행위들을 폭로

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11일 이전 《정권》시기 《인권위원회》가 리명박일당에 의해 반인민적악정실현의 도구로 전락되여 저지른 행위들이 폭로되였다.

집권초기부터 《인권위원회》를 눈에 뜬 가시처럼 여기던 리명박일당은 위원회의 기구를 줄이고 인원을 20%이상 축소하며 부산, 광주, 대구 등지에 있는 지방사무소들을 폐쇄하는 내용으로 된 《인권위원회직제개정령》이라는것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진보적동향을 가진 직원들에 대한 요시찰명단을 작성하여 축출하고 악질우익보수분자들을 그 자리에 박아넣었다. 그리고 저들의 심복을 《인권위원회》 위원장자리에 들여앉혔다.

이때부터 《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반인민적악정을 눈감아주다 못해 지어 비호두둔하기까지 하였다.

보수세력의 반공화국소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대북심리전제개권고안》을 통과시키려고 발악하였으며 리명박《정권》의 소고기수입소동의 위험성을 폭로한 《PD수첩》제작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통신절거민들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적폭압, 야간집회금지조치 등 주요 인권침해현상들에 대해 의사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본래의 사명인 인권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리명박《정권》을 위한 일에만 돌아치던 나머지 《인권위원회》권불에서 롱성투쟁을 벌리던 장애자들을 박해하여 끝내 한명이 숨지게 하였다.

리명박《정권》시기 《인권위원회》는 말그대로 반인민적악정을 적극 뒤받침하는 도구였다.

이번에 사실이 드러난것과 관련하여 《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과 책무가 있는 기관이 인권침해하였다.》고 하면서 자기의 죄과를 인정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과 서방의 정책을 비난

로씨야외무성 부상 그레고리 까라씬이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미국과 서방의 정책을 비난하였다.

그는 오늘날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정보전쟁을 벌리면서 제재와 압력을 통해 저들의 목적을 추구하고있다고 까밝혔다.

중동과 기타 위기지점들에서 벌어지고있는 사건들은 외부의 간섭이 정치적불안정을 초래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자기의 앞날을 자체로 결정할 인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는것은 국제생활의 화고부동한 법칙으로 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미싸일계획의 방위적목적 언명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최근 이란의 미싸일계획은 방위적목적을 위한것이며 이슬람공화국은 그와 관련하여 절대로 흥정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자기 나라에는 억제를 위해 미싸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바로 그래서 이란의 미싸일들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남아프리카대통령 씨릴 라마포싸가 16일 한 연설에서 토지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토지개혁은 국가건설에서 반드시 해결되여야 할 중대한 문제이라고 하면서 그는 땅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것은 남아프리카인들의 한결같은 요구라고 말하였다.

그는 땅을 가지는것은 공민의 기본권리이며 사회적불평등을 없애는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일부 지역에서 토지개혁이 정확히 실시되여 성과를 거둔데 대해 밝혔다.

그는 토지개혁이 농촌지역의 식량안전을 강화하며 사회경제적으로 큰 리득을 가져다주게 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스라엘의 탄압만행에 우려

예싱트외무성이 16일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만행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팔레스티나인들의 살림집을 마구 허물어버리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는데 대해 지적하고 성명은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들을 중지할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배격당하고있는 일본산 식품

엄마전 대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현 등 5개 현으로부터의 식품수입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진행되였다.

투표결과 해당 식품들을 들여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라 대만당국은 이 식품들에 대한 수입금제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이 바빠맞아 하고있다. 내각판방장관과 농림수산상이 줄줄이 나서서 유감스럽다느니, 안타깝다느니 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놓았다.

외상 고노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느니,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11에 참가하는것이 곤난하게 될것이라느니 하며 로골적인 위협까지 들이댔다.

전문가들은 식품수입금제조치와 관련하여 일본이 대만에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할것이라고 보고있다.

무엇때문인가. 단순한 경제적손실때문만이 아니다.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회의감이 다시금 머리를 쳐들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때문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에서는 강한 지진과 해일의 영향으로 련속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방대한 량의 방사성물질이 주변의 대기와 바다로 루출되였다. 그후 수많은 나라들이 사고지역에서 생산된 식품들의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하여 일본이 입는 손실은 막대하였다. 농업과 수산업, 식품생산업 등에 종사하던 사고지역 주민들속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였다.

문제는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일본정부가 보다 우려한것은 이러한 상황이 일본산 식품수출의 전면차단에로까지 이어질수 있다는것이였다. 수출국인 일본에 있어서 그것은 악몽으로 된다. 때문에 일본정부는 어떻게 해서나 이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피해사실을 극력 축소, 은폐시키기 위해 《류언비어》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였다. 페이르게 피난민들을 핵물질루출로 오염되였던 이전 거주지로 돌아가게 하였는가 하면 대부분의 감시장치들까지 철수시켰다. 이 모든것은 국제사회앞에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로 인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것처럼 보이기 위한 술책이였다.

한편 일본정객들은 세계의 곳곳을 싸다니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제발 식품수입규제조치를 완화해달라고 돈주머니를 흔들며 간청하였다. 가능한껏 압력도 가하였다. 결과 일본은 적지 않은 나라들로부터 양보를 받아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방사성물질이 섞인 오염수가 계속 흘러나오고있다. 올해 여름에는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로 루출된 방사성물질이 대양건너 미국에까지 퍼져갔다는 어느 한 연구기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였다. 그렇게 되자 국제적으로 일본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급격히 높아가고있다. 그에 따라 대만이 이번 조치를 취하였다.

급해맞은 일본은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광고선전을 적극 벌리고있다. 최근에 도꾜도내에서는 일본주재 각국 대사들에게 후쿠시마현산 식품을 맛보게 하는 놀음이 벌어졌다. 국제사회가 아무런 의심없이 일본의 식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도록 하자는것이였다.

일본은 2020년에 도꾜에서 개최될 올림픽경기대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있다. 일본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그때에 가서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후쿠시마현에서 진행되게 되며 대회에 참가한 각국의 선수들에게도 후쿠시마현산 식품을 《봉사》하게 된다.

일본이 아무리 설레발을 쳐도 그것은 뒤가 켕긴자의 불안한 내심만 빤드름히 드러내놓는것으로 될뿐이다.

본사기자 안철권

미국대학생들의 채무액 최고기록

미국에서 11월현재 대학생들의 채무액이 1조 4 650억US$에 달하였다. 이것은 2009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것으로서 지금까지의 최고를 기록하였다. 17일 이 나라의 블룸버그통신이 전하였다.

범죄 적발

탄자니아경찰이 16일 서남부지역에서 야생동물밀매행위를 적발하여 110여마리의 거부기를 몰수하고 밀매업자를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3일 캄보쟈의 프놈 뻰항에서 짐함속에 숨겨져있던 3t이상의 상아가 적발몰수되였다.

많은 기업체들 파산

도이췰란드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1만 4 710여개의 기업체가 파산당하였다. 11일 이 나라 련방통계국은 특히 건설업과 소매업, 봉사업부문에서 많은 기업체들이 파산되였다고 밝혔다.

항의시위

알바니아의 티라나와 두러스, 슈꼬드라를 비롯한 주요도시들에서 최근 교육조건을 개선할것을 요구하는 시위들이 련일 벌어지고있다. 17일 티라나에서만도 수많은 군중이 정부청사앞에서 시위를 벌리면서 학비를 낮추고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1812018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납송등록 및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